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 (캐나다, 미국)



- 기 간 : 2019. 9. 26. ~ 10. 5
- 방문국가 : 캐나다, 미국
- 방 문 자 : 13명(의원 9명, 직원 4명)



서대문구의회

목 차

I . 머리말	3
II . 출장개요	5
III . 방문국 및 도시 주요정보	7
IV . 방문지별 연수내용	12
V . 의원별 보고서	45

I

머리말 : 공무출장을 다녀와서..

제8대 서대문구의회가 개원하고 2년차에 들어 처음으로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처음으로 국외출장을 가는 의원님들도 많았고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을 제정하고 처음으로 가는 사례라는 점에서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님들의 각오가 남달랐으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전원 외부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예리한 지적과 당부를 들었고 이를 준비과정에 반영하여 수정하는 등 나름 만반의 준비를 갖추고자 노력했습니다.

캐나다·미국과 덴마크·스웨덴으로 각각 나누어 실시된 출장에 저는 캐나다·미국 팀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2개국 10개 도시를 다니는 강행군을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체력적으로 정신적으로 부담이 느껴지는 때도 있었고, 가끔은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궁금한 부분을 완전히 해소하지 못했다는 아쉬움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6대 의회 의원 시절의 국외출장과 비교해 보면 이번 국외출장은 어느 때보다 준비과정에서나 현장 연수 과정에서 내실을 추구한 연수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열심히 준비하고 참여해 주신 의원님들과 직원들의 노력 덕분이기도 하지만 서대문구의회에 꾸준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따끔한 질책으로 저희를 각성하게 해주신 주민 여러분 덕분임을 명심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보고서를 작성하여 주민 여러분께 공개함으로써 주민의 평가를 받아 의회 발전에 밑거름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보고서가 서대문구의 정책을 제안하고 심의하며 결정하는 모든 과정에 녹아들기를 기대합니다. 또한 향후 모든 국내외 출장을 준비하고 수행하는 전 과정에 좋은 기초자료가 되기를 바랍니다.

비록 미흡한 점이 많아 보일지라도 우리 서대문구의회 의원들은 계속 노력하고 더 나은 모습으로 주민의 신뢰에 보답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힘든 일정에도 사고없이 무사히 출장을 완수하신 양 팀의 모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주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있습니다. 늘 건강에 유의하시고 행복한 하루하루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9년 11월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의회 의장 윤 유 현

2019년 서대문구의회 공무국외출장 보고

[캐나다, 미국]

II

출 장 개 요

출장목적

- 해외의 복지·문화·관광 등 다양하고 우수한 사례를 경험함으로써 국제적 감각을 제고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 구의 주요 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
- 도시재생 및 시설 운영 관련 선진사례를 경험하고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우리 구의 주요 정책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모색

출장국 : 캐나다(토론토, 나이아가라, 오타와, 퀘벡, 몬트리올)

미국(보스턴, 뉴저지, 뉴욕)

출장기간 : 2019. 9. 26.(목) ~ 2019. 10. 4. (토) / (7박 10일)

출장인원 [13명]

연번	직 위	성 명
1	의 장	윤유현
2	부의장	홍길식
3	의회운영위원장	박경희
4	행정복지위원장	김해숙
5	의 원	이동화
6	의 원	김덕현
7	의 원	최원석

연번	직 위	성 명
8	의 원	이종석
9	의 원	양리리
10	입법지원관	박승락
11	주무관	김기병
12	주무관	육화선
13	주무관	박명기

주요 연수일정

일 정	지 역	세 부 일 정	비 고
9/26(목)	인천 → 토론토	✈ 인천공항 출발 (오전 9:35) ⇒ 캐나다 토론토 도착 (오전 9:45)	한국
9/26(목)	토론토	기관방문 1. 토론토 시청 기관방문 2. 토론토 패스(PATH)	캐나다
제2일 9/27(금)	토론토 → 나이아가라폴스	현장방문 1. 세인트로렌스 마켓 기관방문 1. 나이아가라 하수처리장	
제3일 9/28(토)	나이아가라폴스 → 오타와	나이아가라폴스 → 오타와 (이동시간 7시간)	
제4일 9/29(일)	오타와 → 몬트리올	기관방문 1. 오타와 의회연방의사당 현장방문 오타와 → 퀘벡 → 몬트리올 (이동시간 8시간)	
제5일 9/30(월)	몬트리올 → 보스턴	기관방문 1. 몬트리올 RESO 지하도시 유지관리기관 캐나다 몬트리올 → 미국 보스턴 이동 (이동시간 6시간)	미국
제6일 10/1(화)	보스턴 → 저지	기관방문 1. 보스턴 도시재개발청 보스턴 → 저지 이동 (이동시간 5시간)	
제7일 10/2(수)	저지	기관방문 1. 노인복지시설 방문 [Piscataway Senior Center] 기관방문 2. Jersey City Council	
제8일 10/3(목)	뉴욕	기관방문 1. 뉴욕공립도서관 https://www.nypl.org/ 현장방문 1. 뉴욕 "The High Line" (도시재생·도심녹지) 현장방문 2. 첼시마켓 http://chelseamarket.com/ (도시재생·지역활성화)	
10/3(목) 10/5(토)	뉴욕 → 인천	✈ 뉴욕 JFK공항 출발 (오후 22:00) ⇒ 인천공항 도착 (오전 04:10)	

Ⅲ

방문국 및 방문도시 주요현황

1. 방 문 국 가

■ 캐나다

- 수 도 : 오타와(Ottawa) 면적 : 9,984,670km²
- 인 구 및 GDP : 37,040,000여명, 1조 6,530억 4,279만 5,255달러
(세계10위)
- 도시별 인구 : Toronto(635만 명), Montreal(414만 명), Ottawa(138만 명), Quebec City(81만 명) 등
- 구 성 : 10개주(province), 3개 준주(territory)
- 기 후 : 온대성 대륙성(중부내륙), 해양성(태평양 대서양 연안), 한대성(북극권)
- 민 족 : 영국계(28%), 프랑스계(23%), 기타 유럽계(15%), 아메리카원주민(2%), 혼혈(26%) 등
- 통 화 : 캐나다 달러(CAD), 1CAD=895.74원(2019.10.17.기준)
- 공용어 : 영어, 프랑스어
- 종 교 : 로마가톨릭교(42.6%), 개신교(23.3%), 기타 기독교(4.4%), 이슬람교(1.9%)



미국

- 수 도 : 워싱턴 D.C(Washington District of Columbia)
- 면 적 : 9,633,350km² (한반도의 약 42배·남한의 95배)
- 인 구 : 329,000,000여명
- 구 성 : 51개주
- 민 족 : 백인(77.9%), 흑인(13.2%), 아메리카 인디언/알래스카 원주민(1.2%), 아시아인(5.1%), 하와이 원주민/기타 태평양 섬주민(0.2%), 2개이상 인종(2.4%)
- 통 화 : 달러(USD), 1USD=1,180.00원(2019.10.17.기준)
- 주요도시 및 인구
New York(834만), Los Angeles(386만), Chicago(271만), Houston(216만), Philadelphia(155만), Phoenix(149만), San Antonio(138만), San Diego(134만)
- 언 어 : 영어(일부지역 스페인어 통용, 스페인어 사용인구 14.7%)
- 종 교 : 개신교/가톨릭(78.3%), 유대교(1.8%), 불교(1.2%), 이슬람(0.9%), 힌두교(0.6%), 기타 (0.6%), 무교(16.4%)
- 기 후 : 남부 아열대로부터 하와이의 열대, 북부 한대 등 다양함



2. 방문도시에 대한 주요정보

1. 토론토

○ 온타리오 주의 주도로서 캐나다 제1의 도시이고 미국 포함 북미지역에서 4번째로 큰 도시(최근에는 미국의 시카고를 밀어내고 3번째 도시라고 보는 견해도 있음). 종전에는 몬트리올이 제1의 도시였으나 불어권인 몬트리올이 퀘백주 독립 등의 이슈로 몸살을 앓는 동안 토론토는 적극적인 이민과 개방정책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캐나다 제조업의 약 70%, 캐나다 인구의 1/4(GTA, 주변 도시를 포함한 광역도시권)을 차지하고 있음.

2. 나이아가라 폴스

○ 온타리오주 나이아가라폴스 시의 면적은 210km², 인구는 약 8만여 명으로서 미국 뉴욕주와의 경계에 위치하고 있음(뉴욕주에도 동명의 시가 있음).

○ 나이아가라 강의 메인인 말굽폭포를 관할하는 나이아가라 폴스 시는 매년 1천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만큼 관광산업과 카지노 산업이 시 경제의 중심이 되어 있음.

3. 오타와

○ 캐나다의 수도로서 온타리오주에 있으나 퀘백주와의 경계 즈음에 위치.

○ 캐나다의 많은 지명이 원주민의 단어에서 유래된 바와 같이 이 지역의 원주민인 Odawa족의 이름에서 오타와강과 오타와시의 이름이 유래됨. 캐나다의 수도 결정 당시 토론토, 몬트리올, 퀘백, 킹스턴 등 4개 도시간 치열한 경쟁이 있었으나 1858년 영국의 빅토리아 여왕은 영국계와 프랑스계가 비슷하게 분포하고 있고 지리적으로도 중간인 점에서 이 곳을 수도로 결정하였다고 전해지고 있음.

○ 인구는 90만 명 수준이고 행정도시의 특성상 공무원이 직업인 사람이 많음.

4. 퀘백

- 퀘백주의 주도(州都)로서 성곽으로 둘러싸인 성곽도시임. 서구인 중에서는 1535년 프랑스인 자크 카르티에가 이 곳에 처음 들어왔고 1608년 샹플랭이 자리를 잡음. 이후 프랑스와 영국 사이의 전쟁이 지속되다 1763년 파리조약 이후 영국령이 됨.
- 1985년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 프랑스와의 전쟁에서 영국이 승리한 후 성곽을 쌓았고 현재는 관광지로 우리나라에는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세를 탄 바 있음.
- 시타델 요새, 아브라함 평원, 뒤프랭 테라스, 샤토 프랑뜨낙 호텔 등을 산책하듯 걸으면서 모두 볼 수 있을 정도로 이어져있고, 광장을 지나 내려가면 빠르게 샹플랭 거리로 이어지는 코스가 가장 유명한 관광코스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있음.
- 인구는 53만여 명으로서 대부분이 프랑스 출신이고 언어는 물론 전반적인 도시 풍경이 유럽풍 도시.

5. 몬트리올

- 캐나다에서는 토론토(영어권)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도시이자 불어권 도시 중 파리를 제외한 가장 큰 도시로서 인구는 170만여 명
- 우리에겐 손기정 선수에 이어 독립 후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리스트(레슬링 양정모 선수)를 배출한 몬트리올 올림픽(1976년)으로 잘 알려져 있으나 그 올림픽 이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함.
- 영-불 문화권의 대립은 두 차례의 퀘백주 분리독립 투표로 표출되었고 그것이 좌절되는 과정에서 많은 기업이 몬트리올을 떠나며 제1도시의 지위를 토론토에 내어주게 됨.
- 여러 시련을 거치며 최근에는 개방과 기업유치 노력으로 재성장 동력을 확보해 나가고 있음.

6. 보스턴

- 미국 메사추세츠주의 주도이고 청교도가 처음 발을 디딘 곳으로 가장 오래된 도시 중의 하나.
- 오래된 건축물과 현대적 고층건물이 섞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보스턴 주변에는 ‘미국의 아테네’ 라는 별칭에 걸맞게 하버드, 캠브리지, MIT 등 세계적으로 유명한 대학을 포함하여 100개 이상의 단과 및 종합대학이 소재하고 있음.

7. 저지 시티

- 뉴저지주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은 도시로서 뉴욕의 맨해튼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베드타운의 기능을 하고 있음.
- 인구는 약 26만명 수준이며 허드슨강을 따라 들어선 부두와 광범위한 철도 인프라를 갖추고 있어 운송 및 유통의 중요 요충지이며, 해안가를 중심으로 한 재개발로 금융 중심지로도 발돋움하고 있음

8. 뉴욕

- 세계적인 대도시로서 뉴욕시의 인구는 840만 명에 이르고 인구밀도 또한 가장 높은 편에 속함. 뉴욕 메트로폴리탄(대도시권역)으로는 2천만명으로 추산.
- 상업, 금융, 무역의 중심지로서 경제 수도로서의 지위는 물론 UN본부가 있어 국제외교 중심지의 지위도 누리고 있음.
- 5개의 자치구(브록클린, 퀸즈, 맨해튼, 브롱크스, 스타튼 아일랜드)로 구성되어 있고 자유의 여신상, 타임스퀘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등 세계적 랜드마크가 소재.

IV

방문지별 연수내용

1. 토론토 시청 (노인복지부서)

노인복지

- 위 치 : 100 Queen St W, Toronto, ON M5H 2N2
- 방문일시 : 2019. 9. 26.(목) 13:00
- 면담자 : Andrea Austen (Manager, Seniors Transition Office)

1. 개요

- 토론토의 베이비붐 세대가 65세가 된 것은 2011년으로, 이후 토론토에 거주하는 노인의 수가 처음으로 15세 이하 어린이·청소년의 수보다 더 많아지는 등 급증하고 있음. 2017년에는 65세 이상 인구가 16%였고 2041년에는 22%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토론토 노인정책 Version2.0에서는 18개의 단기정책과 9개의 중기 권장정책을 포함하였고 단기정책은 매년 예산에 반영되고 있음.
- 기존 정책과 비교해서 version2.0은 65세 이상 노인의 임대주택 공급 등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음.

2. 질의답변

- Q) 복지시설의 지원체계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국은 중앙정부의 지원책, 서울시 지원책, 서대문구 지원책이 각각 있고 중복되는 것은 협의·조정하는데?
- A) 토론토시 자체적으로 뭔가를 하는 정책은 별로 없고 대부분 온타리오주에서 펼치는 정책을 시에서 처리한다. 주 정부가 연금이나 홈 커뮤니티 케어, 헬스케어 등의 정책 관련 예산을 관할하고 시에서는 그 예산을 집행하는 방법에서 약간의 자율성이 있어서 시마다 실시하는 프로그램이 다르고 조금씩 다른 케이스가 나타난다.

Q) 한국은 고령화사회로 이미 진입했는데 캐나다의 경우는 어떤 추세인가?

A) 토론토시는 10년, 15년 후에는 노년층이 6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 한국과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Q) 여러 정책 가운데 주민들, 특히 노인들의 반응이 좋은 정책은 무엇인가?

A) 방문지원 인력을 대거 확충하여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케어하는 서비스가 특히 성과가 좋다. 911(우리나라의 응급전화 119)을 자주 이용하는 노인들을 중심으로 방문서비스를 실시한 결과 응급전화 이용률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성과가 있음

또한, 주택 셰어링 프로그램도 반응이 좋은 편이다. 노인이 썬 임대료로 주택을 제공하고 대학생은 일정 시간 이상 청소, 음식만들기, 노인돌봄 등 노인의 생활을 지원하는 봉사의무를 부담하는 방식이다.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가구 수가 많지는 않으나(약 150가구) 급속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Q) 방문케어는 무엇을 서비스하고 일주일에 몇 번 정도 방문하는가?

A) 건강 체크 뿐 아니라 교통 기타 잡다한 부분까지 케어하고 있다. 젊은 사람이 보기엔 별 일 아닌 것 같은 것도 노인들에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현재는 1주일에 120회 정도 방문한다. (15명이 활동 중인데 통틀어 그 정도 방문실적이 있다는 의미로 보임)

3. 시 사 점

○ 서대문구의 인구는 2018년 말 기준, 310,313명이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60,045명으로 16.1%를 차지하고 있음. 2018년 지방선거 당시의 유권자 수가 약 27만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19세 미만 인구가 4만명 수준에 불과하여 노인 인구가 미성년 인구보다 훨씬 많

은 상황이라는 점에서 토론토와 유사한 상황.

- 설명하는 동안 인상 깊었던 것은 “고령화 인구의 성장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는 언급이었음. 고령화 시대를 긍정적으로 본다는 것은 위기감이나 해결해야 할 숙제가 아니라 변화에의 적응, 새로운 혁신의 개념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의미일 것임. 이는 새로운 산업, 새로운 직업,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저력으로 작용할 것임.
- 홈쉐어링의 경우 단순히 학생들을 노인 가정에 입주만 시키는 것이 아니라 시에서 꾸준히 만나고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살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고 함. 우리나라에서 홈쉐어링이 자리를 잘 못잡는 것은 세대갈등이 심화되는 측면도 있겠지만, 지속성을 위한 사후 대책이 보다 강화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전반적으로 소개한 여러 노인복지지원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는 이미 시행중이거나 시범도입을 하고 있어 특별히 새로운 제도를 찾는 것은 어려웠으나, 같은 제도라도 문화나 국민 의식의 차이로 그 성과는 큰 차이를 보이기도 함.

〈Version2.0에 포함된 27개 정책〉

1.서비스 시스템의 통합, 노인주택 및 서비스 담당기관 운영	10.싼 주택 공급과 주택수리 등	19.보행성·접근성 향상 위한 보도건설
2.저소득노인 위한 무료치과 서비스	11.홈쉐어프로그램(노인-대학생 연결)	20.대중교통에 대한 노인접근성 향상
3.노인센터 추가 설치를 위한 기금마련	12.새로운 노숙자쉼터	21.직장내 ani-ageism 캠페인
4.노인 디지털문해력 프로그램 확대	13.노숙자주택 건설, 기금마련	22.동성애, 성전환 혐오 관련 노인 인식 개선 캠페인
5.응급전화를 자주 사용하는 노인에 대하여 평시 지역사회 치료지원 확대	14.연령친화도시를 위한 계획수립	23.온타리오주 노동자 고용지원 확대
6.협력체계를 통하여 노인 간병인의 요구에 대응하는 정책 개발	15.아파트 등 노인을 많이 수용할 수 있는 시설 개발	24.재산세 연기·취소에 대한 대중의 인식 제고
7.노인친화적 야외피트니스 장비	16.노인 안전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25.노인대상 서비스의 업데이트
8.공중보건 및 식품협의회를 통한 건강한 식품에의 접근	17.노인존중을 위한 운전자 인식개선	26.다양한 봉사활동, 커뮤니케이션 촉진
9. 2030년까지의 주택정책 추진 (고령자 거주 주택 개발)	18.도로안전, 노인안전구역 추가 설치	27.노인문제 인식개선, 노인교육 커리큘럼 개발(경찰청)

4. 현장사진

		
토론토시청 전경	구 시청사 전경	시청 내부
		
토론토시청 노인복지부서 미팅	간담회 종료 후 기념촬영	Age-friendly 친화도시 인증서

토론토PATH

도시재생

- 위 치 : 1 King St E, Toronto, ON M5H 1A1
- 방문일시 : 2019. 9. 26.(목) 15:00

1. 개요

- 길이가 72km가 넘고 37만^m의 면적에 1,200개의 쇼핑숍이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쇼핑단지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곳으로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확장되고 있음.
- 토론토의 추운 날씨를 피하기 위해 건설한 PATH는 토론토시의 핵심 오피스빌딩들이 집중된 지역에서 그 건물과 지하를 연결하여 사람들이 외부를 거치지 않고 모든 업무와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으며 하루 이용자 수는 35만 명 수준이고 관련 종사자 규모는 4,500여 명.
- PATH의 시초는 1900년대 초 Eaton 백화점이 건설한 지하터널이라 할 수 있는데 이것이 토론토 최초의 지하보행 통로임. 이후 지하터널이 하나 둘씩 생기다가 1960년대 본격적으로 연결과 확장의 개념을 포함시킨 지하쇼핑몰을 만들어 현재까지 확장되고 있으며 향후 25년간 지금보다 두 배 규모로 또한 확대될 계획임.

2. 질의답변

Q) PATH의 소유와 관리책임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

A) 공공과 민간이 섞여 있다. 대체로 민간이 개발하고 지하철 등 공공시설은 공공에서 개발한다. PATH의 건물 아랫 부분은 경비나 관리도 건물측에서 하고 보행구간은 토론토시에서 관리한다.

Q) PATH가 계속 확장될 계획이라고 했는데 법적으로 건물과 지하통로와 연결이 강제되는 것인가?

A) 법에 그런 것은 없지만 건축허가시 연결을 권장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 민간 스스로가 연결을 원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생긴 않을 것으로 본다. 다만, 연결시에 디자인이나 전체적인 보행체계와의 조화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부분이 있다.

Q) 개방시간이 따로 정해져 있나? 보행네트워크라면 24시간 개방이 필요해 보이는데...

A)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개방한다. 주말에는 사람이 별로 없지만 같은 시간 동안 개방한다. 지하철 등 일부 구간은 24시간 개방하는 곳도 있다.

3. 시 사 점

○ 토론토 PATH가 지하보행 네트워크의 성공사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것은 추위를 피할 공간이라는 시민들의 공감대와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이고 그 이행과정에서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

○ 즉, 주민 대다수의 지지와 호응을 바탕으로 시작하고 추진동력도 민간의 에너지가 발휘되도록 유도하는 것이 중요함. 공공의 역할은 장기적이고 전체적인 방향과 계획, 필수불가결한 정도의 가이드라인 제시 등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임.

○ 우리 구에서 추진중인 홍제권역 보행네트워크와 비교했을 때, 주민의 요구에서 출발한 것인가 또는 민간이 주도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그 성패를 어느 정도는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임.

○ 그 뿐 아니라, 물리적인 여건의 차이를 고려하면 더더욱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음. 토론토PATH의 경우 단순한 보행통로가 아니라 하나의 완전한 지하도시의 기능이 가능하지만, 홍제권 보행네트워크는 보행통로의 기능 이상으로 확장 및 발전가능성이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4. 현장사진

		
지하 진입 전 브리핑	이동하면서 설명 및 질의	PATH내 구역 안내판
		
PATH 건설 전의 시청사 앞	PATH내 가게와 방향안내 표지	방문을 마치고

세인트로렌스 마켓

도시재생

- 위 치 : 92-95 Front Street East, Toronto, ON M5E 1C3
- 방문일시 : 2019. 9. 27.(금) 10:00

1. 개요

- 1800년대 초에 농산물 시장으로 만들어진 목재건물이 시초이나 대화재 이후 벽돌로 재건되었고 이후 수 차례의 복원 및 수리를 거쳐 오늘에 이르고 있음.
- 노스마켓, 사우스마켓, 세인트로렌스 홀 등 세 건물로 구성
 - 노스마켓 : 토요일마다 열리는 유명한 장인 파머스 마켓이 열리는 장소이며 회의나 행사장소로도 쓰이고 있음.
 - 사우스마켓 : 채소, 과일, 육류 등을 판매하는 가게가 위치하고 전시공간도 마련되어 있음.
 - 세인트로렌스 홀 : 층별로 가게, 시청사무실, 대여 홀이 각각 위치하고 있음.
- 농산물은 물론 다양한 먹거리를 파는 식당들이 자리잡고 있음. 많은 가게들이 수십 년은 물론 100년 가까운 시간 동안 같은 자리에서 장사를 하는 경우가 많음.

2. 시 사 점

-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전통시장과 달리 통로가 넓고 가게 배치가 정돈되어 있어 쇼핑을 하는데 편의성이 높음. 우리 전통시장 활성화 정책에서도 시설의 현대화도 중요하지만 이용자의 동선과 이용상 편의를 보다 섬세하게 배려하기 위한 개선책을 고민해야 할 것이라 판단됨.
- 세인트로렌스 마켓은 건물 자체는 오래되었으나 그것이 낡았다는 느낌보다는 유서깊은 전통으로 다가오고, 이용하는 측면에서는 이동에 장애가 없어 이용자 입장에서는 이동과 휴식에서 배려받는

다는 인상을 주고 있음. 오래된 것을 단점이 아니라 차별화된 콘텐츠로 활용한 성공사례라는 점에서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최신 트렌드에도 부합한다고 판단됨.

3. 현장사진

		
마켓 전경	마켓 내부 전경	100년 역사를 자랑하는 가게 (since1895)

나이아가라 하수처리장

도시재생

- 위 치 : 3450 Stanley Avenue, Niagara Falls, Ontario L2E 6V8
- 면 담 자 : Robert Daw (1구역 폐수처리장 관리책임자)
- 방문일시 : 2019. 9. 27.(금) 14:00

1. 개요

- 나이아가라 하수처리장은 1963년 건설되었고, 인구가 8만~9만명인 나이아가라폴스 시의 하수를 처리함. 주말 등 관광객이 몰리는 시즌에는 20만명 수준의 하수를 처리.
- 침전, 약품처리 등의 1차 처리 후 RBCs 공정을 거치고 1차처리와 똑같은 방식의 2차 처리를 실시한 후 방류
- 오래전에 건설되었고 몇 차례 시설을 업그레이드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낡은 것이 많음. 2~3년 내로 대규모 업그레이드를 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2. 질의답변

Q) 최종 처리되면 나오는 찌꺼기는 어떻게 처리하는가?

A) 별도로 약간의 처리를 거쳐서 퇴비로 활용한다. 바로 뿌릴 수는 없고 금속 같은 불필요한 것을 제거하고 화학적 조치를 거친 후 활용한다.

Q) 최종 방류되는 물의 BOD 수준은 얼마나 되는가? 최초 유입수와 최종 방류수의 BOD 차이는?

A) 150mg/L에서 20mg/L로 낮춘다.

Q) 근무인원은 얼마나 되는가?

A) 14명이며 일부 2교대로 근무한다.

3. 시 사 점

- 서대문구의 하수를 처리하는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는 서울시의 하수처리장 가운데 가장 작은 규모이지만, 하루 1백만 m^3 (10억 리터)의 하수를 처리하고 있음. 나이가 가라 하수처리장의 서비스 인구수가 8만여 명, 관광객 증가시에도 20만명 수준의 하수를 처리하는 것이 비해 난지의 경우는 서대문, 은평, 마포, 용산 전지역과 종로, 중구 등 일부 지역까지 포함하기 때문에 규모를 가지고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
- 시설 자체는 난지물재생센터가 다른 선진국에 비해 특별히 떨어지는 것은 아님. 다음 기회가 된다면 하수처리장의 시설이나 시스템보다는 보다 상위개념인 물관리 정책에 대한 연수와 벤치마킹을 검토하는 것이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

4. 현장사진

		
하수가 유입되는 지점	유입수를 1차로 걸러낸 찌꺼기들	1차 침전조로 가기 전 처리
		
침전조	설명 및 질의답변	방문을 마치고

오타와 의회 연방의사당

정치/의회

- 위 치 : 111 Wellington Street, Ottawa, Ontario, K1A 0A9
- 방문일시 : 2019. 9. 29.(일) 09:00

1. 개요

- 1876년에 건축된 고딕식 건축물로서 가운데 본관 건물은 평소 일반인의 관람이 이뤄지고 있음.
- 실질적으로 나라를 이끄는 총리는 선거에서 승리한 다수당의 총수가 맡음.
- 의회는 양원제로서 상원(주별 배분) 105명, 하원(소선거구제) 338명으로 구성함.
- 그러나 대통령중심제인 미국의 의회가 상원의 위상이 더 높은 것과는 달리 캐나다는 내각을 구성하는 하원이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음.
- 상원은 총리가 지명하는데 임기가 없는 종신제(다만 75세 정년이 있음). 하원은 선거로 선출되면 임기는 4년(다만 의회해산시 예외).
- 회의는 우리나라처럼 회기를 따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2주 회의하고 2주 쉬는 방식이며, 회의기간은 화·수·목은 전체 회의를 하고 월·금은 분과별로 모임.
- 우리가 방문할 당시는 연방의회 건물이 공사중이어서 상하원이 임시청사를 사용중인 시기였기 때문에 원래의 연방의사당 건물이 아닌 임시청사(상원)에서 연수를 진행.

2. 시 사 점

- 우리가 방문한 상원의회의 회의장은 영국의회처럼 마주보는 방식이고 각 의원의 자리는 매우 좁음. 형식과 권위 보다는 실용을 중시하는 문화의 한 단면을 볼 수 있음.
- 다만, 캐나다 상원의 위상이나 역할, 선출되지 않고 임명되는 종신

제라는 점은 우리나라의 시각에선 쉽게 이해하기 힘든 부분임. 미국 상원과 달리 실질적 권한이 특별히 없는데 굳이 양원제를 운영하는 것이 합리적인가 하는 의문.

○ 이는 캐나다의 정치역사와 문화를 보다 연구해야 할 부분일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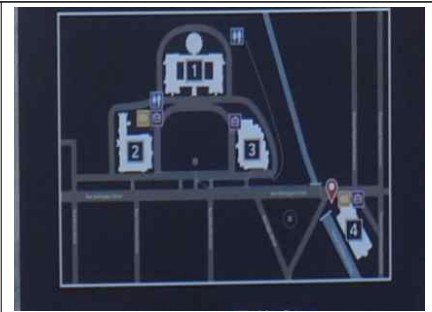
3. 현장사진



상원 출입문(임시청사에 문만 전시)



상원 회의장



1~3번은 공사중인 원래 의사당,
4번은 우리가 방문한 임시청사



방문을 마치고



임시청사 밖의 동상
(여성 참정권 운동을 기념)

몬트리올 RESO 지하도시 관리기관

도시재생

- 위 치 : 747 Ruedu Square-Victoria #247, Montréal, QC H2Y 3Y9
- 면담자 : StePhanie Turcotte (토론토시 대외협력과)
Lucie Lavoie (토론토시 지하도시관리부서)
소방청 소방담당자
- 방문일시 : 2019. 9. 30.(월) 10:00

1. 개요

- 몬트리올 지하도시는 12km²의 면적에 길이는 50km(지하철 등 사람이 지날 수 있는 모든 동선 포함)에 이르며 지하철역 7개가 접하고 120개 이상의 출구가 있음.
- 컨벤션센터에서 몬트리올 시 관계자 2명과 소방청 담당자를 만나 간략한 설명을 듣고 일부 구간을 이동하면서 설명 및 질의응답이 이루어짐.
- 민간과 공공이 각각 소유하고 있음. 건물마다 소유자가 다르고 관리 또한 소유자가 다른 시스템으로 하며 쇼핑센터는 가게마다 소유권이 다르기도 함. 퀘백은 전기가 남아도는 곳이기 때문에 냉난방도 모두 전기로 함.
- 위급상황 발생시에는 몬트리올 소방과에서 상황 전반을 컨트롤하게 됨. 여러 관계기관과의 협력대응을 하는데 예를 들면 몬트리올 교통공사(STM), 하이드로 퀘백(한국전력과 같은 기관)과 같은 공공기관이 있음.
- 최초의 지하철이 1960년대에 건설되었는데, 지하도시를 만든 이유는 추운 날씨도 있지만 지하철의 연결을 용이하게 하는 것이 더 큰 이유임. 즉 지하철에서 곧바로 상업건물로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기 위함.

- 두 지하철역을 연결하는 통로역할을 하게 되면서 유동인구가 더 늘어났고 관광객도 늘어남
- 연결되는 건물 중 가장 큰 것은 처음 만났던 컨벤션센터이고 인근 대학과도 연결된다.
- 일부 구간은 지하도시 더 밑으로 지하고속도로가 지나가기도 한다.

2. 질의응답

Q) 비상상황 발생시 비상발전기가 작동될텐데 그 관리는 누가 하나?

A) 전기 관련된 것은 하이드로 퀘백에서 한다. 비상시에는 소방청과 하이드로 퀘백이 협력하여 조치하게 된다. 가스공급에 문제가 발생하면 몬트리올 가스공사에서 관리하게 되고.

Q)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는가?

A) 큰 화재는 없었다. 작은 화재 정도만 발생했다. 몬트리올 시에 1년에 15만 건 정도의 신고를 받는데 그 절반이 화재신고인데 아직은 큰 화재가 없었다. 60년대 처음 지하철을 만들 때 화재가 있었는데 연기가 심하게 났었으나 환기시스템이 잘 작동해서 인명피해는 없었다.

Q) 테러나 화재에 대비한 합동훈련은 얼마나 자주 실시하는가?

A) 화재 훈련은 1년에 자주 여러번 하는 편이고 대테러 훈련은 1년에 한 번 정도 실시한다.

Q) 우리나라는 예전 대구 지하철 화재사건 이후 방독면을 곳곳에 설치했는데, 여기도 혹시 방독면이 설치되어 있는가?

A) 방독면 설치는 없다. 다만, 처음 지하철을 만들 때부터 환기시설을 철저히 했다.

Q) 방화문이 보이질 않는데 차단 시설은 있는가?

A) 이 곳은 필요가 없고 건물로 연결되는 통로마다 설치되어 있다. 이동하면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각 건물의 경계마다 건물주가 설치하

게 돼 있다.

Q) (방화문 주변) 이 곳은 연기가 났을 때 작동하는 것이 없다. 불이 나 온도를 감지하고 스프링클러가 터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미흡하지 않은가?

A) 화재시에는 공기순환 장치가 중단되고 방화벽이 닫혀 확산을 막는다. 전체적으로는 연기를 빨아들이고 신선한 공기를 주입하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다.

모든 곳이 연기센서와 열센서가 같이 설치되어 있는 게 아니고 식당 같은 곳과 도로 되어 있는 단순통로 등 각 구역별 특성에 따라 하나만 있거나 같이 있을 수도 있다.

Q) 공사 과정에서 유물이 나왔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이 경우에는 어떻게 대처하나?

A) 이 곳이 몬트리올 구시가지의 성곽이 있던 지역이다보니 옛날 성터가 발견된 적이 있다. 이런 경우 곧바로 문화부에 보고하고 문화부에서 진행 여부를 결정한다.

Q) 넓은 지하공간에 맞는 주차장 수요가 많은데 주차난은 없는가?

A) 주차장은 옥외에 대부분 있다. 지하철이나 지하고속도로가 있다보니 지하에 주차장을 지을 수 없다. 주차난은 매우 심각한 편이다.

3. 시 사 점

○ 화재에 대비한 시설 측면에서 썩 뛰어나다는 인상은 받지 못하였음. 이는 60년대 건설된 시설과 통로 등을 그대로 사용하는 곳이 많이 때문이라 이해됨.

○ 시설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도 특별히 떨어지지 않는 보임. 이는 북미 주요도시의 발전이 100년 이상의 역사가 있고, 우리나라는 전부 밀어내고 새로 짓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발전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최신의 시설이 갖춰진 결과일 것임.

- 서울 지하철역 가운데 여러 노선이 겹치는 역의 경우 지하연결통로이고 주변 건물과의 연결 등의 측면에서 토론토의 PATH 및 몬트리올 RESO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PATH나 RESO는 연결을 통한 도시기능에 중점을 두는 반면 우리나라는 지하철을 우선으로 하고 부가적으로 건물과의 연결을 피하며 발전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음.
- 홍제 보행네트워크의 경우에도 그 자체만의 현대식 시설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사람의 연결, 주변과 함께 발전하는 시설이라는 장기적 관점이 필요할 것임.

4. 현장사진

		
컨벤션센터	RESO 전체 지도	설명을 듣는 의원들
		
건물로 통하는 입구 주변	소방관계자와의 질의답변	방문을 마치고

보스턴 도시계획개발청(BPDA)

도시재생

- 위 치 : One City Hall Square, Boston, MA 02201
- 면담자 : 임태영 (Senior Development Finance Manager)
- 방문일시 : 2019. 10. 1.(화) 09:30

1. 개요

- 보스턴은 미국에서 거의 최초의 도시. 최초의 공립학교, 최초의 대학, 최초의 지하철 등 모든 것이 최초인 것이 많음. 초창기엔 매우 좁은 지역이었고 현재는 대대적인 간척으로 매워진 도시.
- 면적은 225km², 23개 구가 있음. 인구는 70만이 조금 안됨.
- BPDA(Boston Planning & Development Agency)은 1957에 설립. 1950년대 새로운 시장이 신도시정책을 펼치는데(Urban manual plan) 연방-주-시정부 협력으로 재개발사업 실시하게 되는데 이때 BRA(BPDA의 전신)가 설치됨. 주 역할은 부동산을 수용하는 것.
- 문제는 당시의 수용이 형식적으로는 보상을 하지만 사실상 강제수용이어서 주민과의 마찰이 심했음. 그때 쫓겨난 사람들이 아직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음.
- 한편, 1960년대 보스턴시 산하의 건축심의위원회 내지 도시계획위원회 기능이 BRA로 흡수됨. BRA는 2016년 BPDA로 명칭 변경.
- BPDA는 시 산하 행정기관이 아니라 주 급의 공사(公社)임. 다만 하는 일 자체는 보스턴 시에 국한됨. 임대료 수입으로 운영.
- BPDA는 5명으로 구성되는 위원회를 따름. 1명은 주지사가, 4명은 보스턴시장이 추천함. 자금과 조직면에서 자율성을 갖고 장기프로젝트를 할 수 있는 장점. 시장이 4명이나 임명할 수 있기에 완전히 자유로운 것은 아님.
- 건축의 최종 인허가는 토론토시가 하지만, 2만제곱sf(약 1,858m²) 이상의 프로젝트는 무조건 BPDA의 심의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사실

상의 인허가 권한이 있음.

- 또한, 보스턴은 zoning(용도구역에 따른 제한)이 매우 강하게 규제되어 있고 이를 거의 변경하여 완화해주지도 않음. 실제 심의 들어오는 프로젝트의 90%이상은 조닝을 넘어가는데 이 경우 해당 프로젝트에 국한된 효력을 갖는 일시적 허가를 별도로 내어주는 방식으로 건축을 하게 됨. (만약 그 프로젝트가 진행되지 못했다가 이후 그 구역에 다시 프로젝트가 들어오면 처음부터 다시 진행)
- 위와 같은 일시허가를 얻고자 하는 과정에는 ZBA(Zoning Board Appeal)라는 청문회를 거치게 됨. 이 청문회에는 사업자는 물론 주민들 등 이해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해서 청문을 함.

2. 질의응답

- Q) 보스턴은 부동산 가격이 높고, 그래서 임대료도 매우 높은 것으로 알고 있다. 중산층이나 서민들을 위한 주택정책이 있는가?
- A) 뉴욕, 샌프란시스코 등과 같이 보스턴도 굉장히 비싸다. 주택정책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IDP(Inclusionary Development Policy)라고 해서 포괄적 개발정책을 시행중이다. 예를 들면 주택 중 13%를 중·저임금 주민을 위한 아파트 또는 콘도를 짓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다. 법적인 강제는 아니고 정책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평균소득의 80%~100% 사이인 계층(공무원, 경찰, 소방관 등) 대상의 주택공급 정책을 BPDA에서 진행하고 60%미만 계층은 자매기관인 DND에서 추진하고 있다.

- Q) 프로젝트별로 일시적 허가를 준다고 했는데, 예를 들어 이 건물은 5층이 될 수 있고 옆 건물은 8층이 될 수도 있는건가?
- A) 어반디자인(Urban Design)이 이런 것을 본다. 한 건물이 그만큼 올라가 있으면 그것을 고려하게 되고 사실상 새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면 옆 건물도 거기에 맞춰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셈이다. 하나가 불쑥 올라가고 그런 경우는 없다고 보면 된다.

Q) 보스턴에도 일조권이 있는가?

A) 한국의 일조권과는 좀 다른 개념이다. 새도우뱅크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따로 규제가 없어 아주 높은 건물들이 건설되었는데 지금은 그렇게는 안된다. 해수면부터 가까울수록 낮고 멀수록 높아져 마치 일조권처럼 올라간다.

Q) 아까 청문회를 주민과 시민단체까지 같이 한다고 했는데, 한국의 경우 아파트 하나 올라가면 반대 현수막이 바로 붙는다. 보스턴 같은 경우는 어떤가?

A) 없을 수가 없다. 청문회를 해도 주민 입김이 가장 셌다. 청문회 절차와 별개로 업자들이 먼저 주민들을 만나서 나름 협상도 한다. 그리고 업자가 주민들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것을 문서로 써라. 대신 의무적으로 해야하는 건 이것 이것이니까 그 외에 추가로 해줄 게 있으면 상관없다...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Q) 예를 들어, 3년 걸려서 절차를 거쳤는데 시장상황이 변해서 지어봤자 이익이 안생기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텐데... 그 인허가받은 권리를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할 수 있나?

A) 있다. 다만 인허가받은 프로젝트는 변하지 않는다. 똑같이 짓거나 아니면 다시 심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완전히 다른 건물을 짓는 게 아니라 분양으로 승인받았던 것을 임대로 바꾼다든지 기능을 좀 바꾸는 식이라면 심의절차가 빠른 편이다.

3. 시 사 점

○ 한 프로젝트를 가지고 허가관청 뿐 아니라 관계기관, 주민, 시민단체 등 모든 이해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하는 과정이, 사업자가 일일이 각 주체들을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기관에서 주도하는 것이 특이한 점. 일종의 서비스라고 볼 수도 있고 당연히 관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해관계자 간의 조정이라는 쉽지 않은 업무 부담을 사업자에게 지우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높이 평가할 부분임.

- 주민 뿐 아니라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청문을 하는 과정이 신속한 사업을 저해한다는 우려도 있을 수 있고 반대로 1대1로 여러 번 얘기하는 것보다 관에서 다 불러모아 청문하고 협의하는 것이 더 빠른 절차일 수도 있을 것임. 모두의 공감대를 바탕으로 진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효율적이라고도 볼 수도 있음. 우리나라 부동산 개발 정책의 현실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검토할 만한 부분일 것임.

4. 현장사진

		
사전 브리핑	설명 및 질의답변 1	설명 및 질의답변 2
		
모델룸에서의 설명	방문을 마치고	보스톤의 역사를 안내한 지도

피스카타웨이 시니어센터 (뉴저지주)

노인복지

- 위 치 : 700 Buena Vista Ave, Piscataway, NJ 08854
- 면담자 : Amy S. Bauman (Director on Aging, 운영책임자)
- 방문일시 : 2019. 10. 2.(수) 08:00

1. 주요내용

- 피스카타웨이는 뉴저지주 미들섹스 카운티에 속하는 타운쉽으로서 피스카타웨이 시니어센터는 60세 이상의 노인들이 사회적 활동을 유지하고 교류하는 장을 제공함으로써 노인들이 편하게 계실 수 있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운영시간은 월,목(오전7시~오후9시), 화,수,금(오전7시~오후3시), 토(오전8시~오후1시)로 각각 다름.
- 볼룸댄스, Bocce(이탈리아식 볼링이라고 설명), 태극권, 요가, 컴퓨터 프로그래밍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아침, 점심식사가 무료로 제공됨. 점심식사는 2.75달러를 받기도 하는데 이는 판매금이 아니라 기부금 성격임. 식단은 주에서 정한다.

2. 질의응답

Q) 운영주체가 어디인가? 주 또는 시와 같은 공공인가 아니면 사립인가?

A) 시(타운쉽)에서 운영한다.

Q) 시내에 이런 시니어센터가 몇 개나 있나?

A) 뉴저지에 있는 모든 시마다 1개씩을 운영하고 있다.

Q) 피스카타웨이의 인구는 얼마이고 시니어센터 이용자 수는 얼마 정도 되는가?

A) 3,000명 정도가 거주하는데 매일 150에서 200명 사이의 노인들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 이 중 여성이 70%정도 되는 듯하다.

Q) 인구 대비 이용자 수가 매우 높은 것 같다. 그 정도 인원이면 거동이 불편한 분들도 계실텐데 이 분들은 보호자가 따로 모시고 오는 건가?

A) 직접 오는 분도 계시지만 미리 신청하거나 센터에 가입된 회원이면 버스를 통해 모시고 온다. 버스이용은 무료. 다만 병원을 갈 일이 있을 때는 버스가 아닌 다른 차량으로 모셔다 드리는데 이 때는 약간의 자기부담이 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것도 기부금 형식으로 내게 한다. 강제가 아니다.

Q) 노인이면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많을 것인데 센터에서 의료지원 프로그램도 있나?

A) 의료 프로그램은 운영하지 않는다. 우리 센터는 노인의 행복수준을 높이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어서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다만, 독감예방접종의 신청과 건강보험 상담 지원을 하는 등 부수적인 지원사업이 존재한다.

시니어센터를 운영하는 중요한 목적은 독거노인 등을 위해 소일하고 사회와의 접촉을 통해 즐겁게 사시게 만드는 것이지 의료쪽 관련 업무는 관련하지 않는다. 단지 행복수준을 높이는데 관심이 있다.

Q) 이 곳에서 일하는 분들의 인건비는 어떻게 해결하는가? 모두 예산지원인가?

A) 자원봉사자가 많다. 은퇴자들이 자신의 전공을 살려 자원봉사를 해준다. 예를 들면 은퇴한 엔지니어가 매일 시설을 관리해주고 수리도 해주고, 컴퓨터를 가르치는 자원봉사자도 있다. 따로 가끔 외부강사를 초빙하는데 시에서 예산으로 강사료를 지급한다.

Q) 외부강사 보수는 지급인가? 얼마 정도?

A) 12주 강습 기준으로 1,000달러 정도 된다.

Q) 투표에 대한 안내가 있는 것 같은데, 시니어센터 외에 다른 용도로도 쓰는 건물인가?

- A) 곧 뉴저지에서 선거가 있다. 노인들에게 투표에 대한 안내문을 붙여 놓은 것이다. 이 센터가 시에서 운영하는 것이기에 선거 때문에 잠시 허용하는 것일 뿐이고 노인들만을 위한 건물이다.

3. 시 사 점

- 노인이 즐겁게 활동하게 하여 행복지수를 높인다는 목표를 명확히 하고 본질의 기능에 충실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었음.
- 은퇴자를 활용하여 그들의 경력에 따른 새로운 프로그램들을 만들어 노인들에게 교육하는 것은 매우 신선한 모습임. 은퇴한 노인으로서도 새로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이용자들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실비 수준의 이용료를 강제성이 없는 ‘기부금’ 형태로 받는 것은, 기부문화의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수 있고 이용자에게도 자신을 ‘아직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존재로서 여기게 하는 효과도 있을 것임.

4. 현장사진

		
설명 및 질의답변	설명 및 질의답변	수업 중인 어르신들
		
각종 안내문이 붙어 있는 책상	준공기념 표지판	방문을 마치고

저지시의회 (뉴저지주)

정치/의회

- 위 치 : 700 Buena Vista Ave, Piscataway, NJ 08854
- 면담자 : Richard Bocciano (저지시의회 의원)
Vernon Richardson (Michael Yun의원 수석보좌관)
- 방문일시 : 2019. 10. 2.(수) 10:00

1. 주요내용

- 뉴저지 주의 항구도시로서 허드슨 강 너머가 뉴욕시인 만큼, 위성도시의 기능도 하고 있음.
- 인구는 약 30만 명, 유권자는 13만 명 정도이고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나 직장 때문에 오가는 등 전체 유동인구 포함시 약 100만.
-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1609년)라는 자부심. 자유의 여신상도 행정구역상으로는 뉴저지 경계에 속함.
- 저지시의회는 총 9명의 시의원이 있고 그 중 6명은 관할 지역이 있고 3명은 시 전체를 관할하는 의원.
- 주 단위 이상에서는 정당공천이 필요하나 시단위에서는 공천이 필요없음.
- 시장과 의원선거가 동시에 하나의 팀처럼 선출이 됨. 그래서 입법을 하는 과정에서도 사실상 시장의 파워가 훨씬 강하고 의원은 시장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2. 질의응답

- Q) 시 전체 예산 규모는 얼마나 되는가? 가장 많이 지출이 되는 분야는?
- A) 2십억 달러(약 2조4천억 원) 정도이고 가장 많이 차지하는 것은 경찰 및 소방, 안전 관련 예산이다. 그 밖에 건강, 노인복지 등이 되는데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다.

Q) 주민들의 민원 중에 어떤 분야의 민원이 많은 편인가?

A) 교육문제가 가장 많고 안전문제, 청소문제, 노인복지 등이 많은 편이다. 그리고 주차문제도 많은데 작은 지역에 오가는 인구가 많아 고질적인 문제이다.

Q) 회기는 어떻게 되는가?

A) 회기의 개념이 아니고 한 달에 네 번 정도 미팅이 있고, 추가적으로 미팅이 1~2회 더 있을 수 있음. 일에 따라서 달라진다. 항상 의회에 출근을 하지만 바깥 일도 자주 본다.

Q) 급여는 어느 정도 되는가?

A) 연간 4만5천~4만9천 달러 정도, 격주로 지급받는다.

Q) 의원 보좌인력은 몇 명이나 되는가? 개인 보좌관이 있는가 아니면 전체 보좌인력이 전체를 보좌하는 시스템인가?

A) 각 의원마다 2명의 보좌관이 있고 그 밖의 직원은 사실 시장을 보좌하는 것이지 의원을 보좌하는 것이 아니다. 의원들부터가 시장을 위해 일하는 개념이다. 즉, 한 팀으로 같이 일하는 것이다.

3. 시 사 점

- 시장과 의원이 한 팀으로 선출된다는 점은 매우 새롭게 다가옴. 의원이 시장을 견제하기 보다는 시장을 돕는 구조일 수밖에 없음.
- 당연히 그 부작용이 있을 수밖에 없음. 일례로, 시장이 민간회사의 제안을 받아 2차대전 관련 기념동상을 없애려고 했고 주민들은 반대를 했음. 시장과 의원들은 주민반대에도 불구하고 동상을 없애는 법을 통과시켰으나 7천명 이상의 서명이 있으면 통과된 법의 시행을 막을 수 있는 제도가 있어 주민들이 직접 막아선 사례가 있음.
- 정부와 의회가 분리, 견제되지 않고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이는 제도라면 반드시 이를 견제할 수 있는 직접민주주의 요소가 대폭 강화되어야 할 것임.

- 주민자치회 전동 확대 실시, 주민참여예산제의 기능 확대는 물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검토하고 있는 상황에서 직접민주주의 제도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높음.

4. 현장사진

		
설명 및 질의답변	본회의장	프랭크 케인 前시장의 책상 그의 사진과 전시이유가 안내되어 있다
		
시청(의회) 청사 내부	방문을 마치고 (저지시청 앞)	방문을 마치고(간담회장 내)
	추가 브리핑	

뉴욕 공립도서관

문화관광

- 위 치 : 476 5th Ave. New York, NY 10018
- 방문일시 : 2019. 10. 3.(목) 11:00

1. 개요

- 기존에 있던 2개의 도서관과 틸든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전재산의 기부금으로 1895년 뉴욕 공립도서관 설립을 결정하였음.
- 88개의 지역 지사와 4개의 학술 연구센터의 도서관 시스템을 갖추고 있음. 5,500만 점 이상의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는 세계 5대 도서관 중의 하나.
- 브롱크스, 맨해튼, 스테이튼 아일랜드에도 지역도서관을 운영 중이며 인터넷을 이용할 수 없는 시민들은 물론 학생, 이민자 등도 도서관의 자료와 각종 수업프로그램을 활용하고 있음.
- 명칭은 공립도서관이나 대부분의 재원을 후원금으로 운영.
- 매년 약 1800만 명이 후원하고 연간 홈페이지 방문자 수는 200여 개국 3,200만 건에 이르고 있음.

2. 시 사 점

- 도서관으로서 뿐 아니라 박물관 내지 건축문화재로 봐도 무방할 정도의 수준 높은 콘텐츠와 건물을 보유.
- 설립 당시부터 여러 독지가와 시민들의 후원금을 재원으로 설립되었고 현재 운영도 1800만 명의 후원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는 도서관을 바라보는 미국 시민들의 인식을 엿볼 수 있음.
- 다수 후원자에 의해 운영되는 만큼 무료로, 개방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을 중요한 정책으로 삼아 세계에서 가장 개방적

인 도서관으로 꼽히는 등 단순히 관광명소로서가 아니라 도서관의 모범으로 삼을 수 있을 것임.

- 뉴욕 모든 사람들을 위한 도서 및 정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영어수업, 전시회 및 공공 프로그램을 제공.
- 도서관의 상징으로 유명한 두 개의 사자상은 모태가 된 두 개의 도서관인 애스터, 레녹스라는 이름이 있으나 각각 Patience (인내)와 Fortitude(불굴의 정신)이라는 별명으로 더 유명함.

3. 현장사진

		
도서관 전경	기념품, 도서 판매점	도서관 로비
		
단체 관람을 온 관광객들	시청각 자료 감상	방문을 마치고

뉴욕 하이라인(High Line)

도시재생

- 위 치 : Meatpacking District
- 방문일시 : 2019. 10. 3.(목) 15:00

1. 개요

- 맨해튼 가운데에 있던 고가철도(High Line Railroad)를 공원으로 조성한 산책로로서, 하이라인 철도는 육고기와 가금류를 운송하기 위한 수단으로 1930년대에 건설된 철도였으나 그 필요성을 상실하고 1980년부터는 사용되지 않게 됨.
- 용도를 다한 철도를 철거하고자 했으나 Friends of the High Line이라는 단체에서 이를 반대하며 재활용 운동을 벌임.
- 공원 조성은 단계별로 공사가 진행되어 2009년, 2011년, 2014년에 각각 개방됨.
- 서울역 앞 고가도로(서울로7017) 공원화 사업의 모델로서, 도보 산책을 하며 맨해튼의 도심과 다양한 식물을 감상할 수 있는 힐링 공간으로 자리잡고 있음.

2. 시사점

- 도심 속의 흉물이 될 수 있었던 시설을 뉴욕의 새로운 명소로 재탄생시킨 도시재생의 전형적이고 모범적인 모델
- 서울로7017과는 달리, 뉴욕시민들이 먼저 자발적으로 나서 보존과 재생을 추진했다는 점과 장기간에 걸쳐 완성된 사업(즉, 충분한 논의와 공감대 형성이 가능)이라는 점에서 더욱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음.
- 흉물도 명소로 탈바꿈 할 수 있다는 것은 이 사례로 증명된 셈이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명소’ 자체가 아니라 주민의 생각

과 필요와 동력을 충분히 반영하고 확보하는 것이 도시재생의 키워드여야 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됨.

3. 현장사진

		
High Line을 홍보하는 안내판	식물이 곳곳에 심어져 있다	도심 경관을 감상하며 산책
		
High Line 아래쪽	안내표지판	방문을 마치고

첼시마켓

도시재생

- 위 치 : 75 9th Avenue (Between 15th and 16 Streets),
New York, NY 10011
- 방문일시 : 2019. 10. 3.(목) 15:30

1. 개요

- 1898년 지어진, 오레오 과자로 유명한 나비스코社의 공장으로 사용하던 건물로서 하이라인 파크가 지나가는 곳에 위치. 1998년에 첼시마켓이라는 이름으로
- 1층과 지하는 음식점과 식료품 가게, 그 밖에 기념품 등 다양한 가게가 자리잡고 있고 윗층은 구글
- 매년 600만명 이상이 방문하며, ‘Come early, stay late’ 라는 안내처럼 일찍 방문해서 늦게까지 머물러도 지루하지 않고 배고플 일도 없는 곳으로 알려져 있음.

2. 시 사 점

- 밖에서 보면 단지 허름한 건물로 밖에 보이지 않지만, 안으로 들어가면 평일 낮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가게마다 사람들로 가득차 있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짐.
- 어떤 공간이 사람들의 호응과 관심을 받느냐 마느냐는 결국 시설이 넉 그것을 채우고 있는 사람이고 컨텐츠라는 사실을 늘 염두해 두고 도시재생이나 새로운 시설을 만들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임.

3. 현장사진

		
High Line과 첼시마켓	첼시마켓 옛 사진	마켓 내부
		
마켓 내부	가게를 안내하는 표지판	방문사진

V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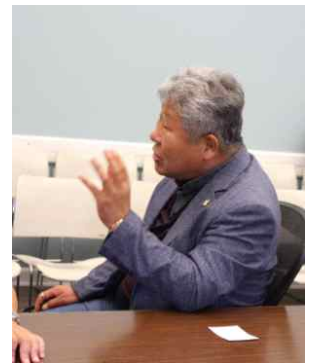
의원별 보고서

제8대 의회 첫 공무국외출장을 정리하며...

홍길식 의원(부의장)

제8대 의회가 개원하여 처음으로 실시한 해외출장은 사전에 면밀한 계획과 외부 인사들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심의를 거쳐서 실시를 하였습니다.

이번 해외출장의 주요 목적은 해외 선진 국가 주요도시를 방문하여 복지·문화·관광 도시재생사업 등 다양하고 우수한 사례를 현장답사 후 경험함으로써 국제적 감각을 제고하고 새로운 시각에서 우리 구의 주요 정책을 바라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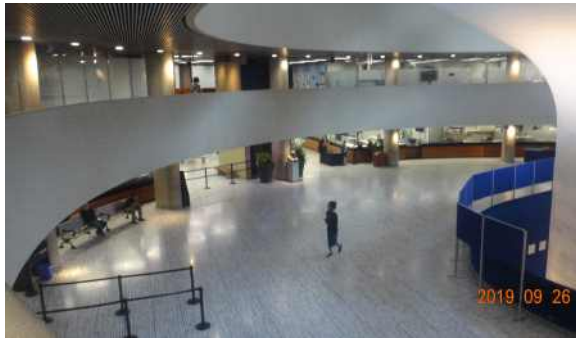
특히 요즘 우리나라나 서대문구에서 실시하는 도시재생사업에 관하여 성공한 도시들의 도시재생 및 시설 운영 관련 주요기관이나 시설들을 방문하여 선진사례를 경험하고 모든 분야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기초자료를 수집·분석함으로써 우리 구가 추진하는 주력사업 및 주요 정책에 적용 가능하여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도록 적용하도록 노력하도록 하고 의정활동에 도움을 갖고자 해외출장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짧은 출장기간동안 많은 분야를 기관이나 현장을 방문하였지만 그 중 우리 서대문구가 추진하고 있는 복지 분야와 도시재생 사업과 도서관 정책분야에 대하여 보고 느낀 사항을 토대로 보고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먼저 복지 분야에 대하여 소감입니다.

먼저 방문한 곳은 기관은 약 13시간의 긴 비행시간을 거쳐서 토론토

공항에 도착하여 곧 바로 ‘토론토 시청’을 방문하여 노인복지분야 전문가인 Andrea Austen 씨와 노인복지 분야에 대한 설명을 듣고 간담회와 토론을 하였습니다.



토론토시청 내부 로비



노인복지부서 간담회

토론토 시는 캐나다 제 1의 도시이고 미국을 포함 북미지역에서 4번째로 큰 도시로 불어권인 몬트리올이 퀘벡주 독립 등의 이슈로 많은 몸살을 앓는 동안 적극적인 이민과 개방정책으로 크게 성장하였고 캐나다 제조업의 약 70%, 캐나다 인구의 1/4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든 복지분야에 많은 예산을 편성하여 국민들의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전체 인구 중 노인층의 비율이 약 16%이며 특히 노인복지분야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사업에 노력을 한다고 합니다.

그 중 특이한 것은 무주택자들을 위한 공동 주택시설을 운영한다든가 노인들을 위한 방문 케어 등에 주력하여 사업을 전개하고 전 국민들의 의료보험비를 약 50% 지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어르신들만 계시는 집에 대학생들을 연계하여 한집에서 가족처럼 생활하도록 지원하여 어르신들이 불편을 해소해 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정책분야는 우리 국가 차원이나 서대문구에서도 벤치마킹하여 연구 모색하여 향후 실시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다음 복지시설방문은 미국 뉴저지주에 위치한 ‘피스카타웨이 노인복

지시설'을 방문하여 이 시설 책임자인 Amy S. Bauman씨께서 나오셔서 설명을하고 간담회를 통하여 노인복지분야 대하여 토론을 하였습니다.

이 시설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전액 무료시설로 어르신 누구든지 신청하여 본인들이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 할 수 있고 아침이나 점심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휴식 및 문화공간이며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 시설에는 한국 교민어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무척 반가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모든 문화 강좌나 각 종 프로그램들을 이용하기 위하여서는 약간의 수강료를 일부 부담하고 사전에 등록을 해야 가능 하지만 이곳은 모든 강사들이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전액 무료로 운영되고 본인이 원하는 강좌에 나오기만 하면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나라와 차이점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처럼 운영하기 위하여서는 많은 자원봉사들의 인적 재원을 발굴하고 동참이 절실히 필요하며 무엇보다도 재능 기부자들을 동참과 발굴을 해야 가능하리라 판단되므로 우리서대문구에서도 이와 같은 제도를 정착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도록 연구하여 정책제안을 할까 합니다.



피스카타웨이 시니어센터 간담회



시니어센터 정기발행 안내책자

최종적으로 복지분야 운영은 벤치마킹할 부분도 있었지만 그래도 우리 서대문구가 좀 더 잘 하고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어서 도시 재생 사업 분야 간담회 및 현장 견학내용입니다.

먼저 토론토 시청에서 복지 분야에 대한 간담회를 거쳐 첫 방문지는 시청앞 ‘지하도시 PATH’를 견학하게 되었습니다.

이 지하도시는 토론토 최초의 지하보행 통로로 조성되었으나 민간의 자발적인 참여로 공공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며 법에 없지만 건축허가 시 연결을 권장하는 방법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현재는 민간 스스로가 연결을 원하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와 마찰은 생기고 있진 않고 있지만 다만, 연결 시에 디자인이나 전체적인 보행체계와의 조화 등을 고려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부분 있으며 개발방식과 관리주체는 대체로 민간이 개발하고 지하철 등 공공시설은 공공에서 개발한다고 합니다. 특히 PATH의 건물 아랫부분은 경비나 관리도 건물 측에서 하고 보행구간은 토론토시에서 이원화하여 관리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하도시의 전체 길이가 약 32km가 넘고 37만^m의 면적에 1,200개의 쇼핑몰이 위치하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지하쇼핑단지로 기네스북에 등재된 곳으로서 지금도 지속적으로 확장 연결되고 있다고 합니다. 연결 규모는 75개 이상의 건물과 3개의 백화점, 9개의 호텔, 6개의 지하철역과 유니온 기차역이 연결되어 있으며 진출입로가 약 125개 이상으로 인구 증가와 산업 발달로 포화된 지상공간의 대안의 프로젝트 인 것 같았습니다. 이로 인하여 약 4,600여명의 일자리 창출과 고용소득 1억26백만 달러를 창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하도시를 추진하게 주된 동기는 토론토의 추운날씨를 피하기 위하기 위함이고 토론토시의 핵심 오피스빌딩들이 집중된 이 지역에서 모든 건물들과 지하를 연결하여 사람들이 외부를 거치지 않고 모든 업무와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였다고 하며 현재 하루 이용자 수는

약 35만 명 수준이라고 합니다.

그 이후 지하보도 터널이 하나 둘씩 생기면서 현재도 계속하여 지하쇼핑몰을 만들어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는 이와 비슷한 ‘몬트리올 RESO지하도시’를 방문하였습니다.

이 도시를 조성한 계기와 방법은 토론토 지하도시 PATH와 비슷하다고 하며 이 사업을 설명해 주기위해 몬트리올 시청에서 StePhanie Turcotte 씨와 Lucie Lavoie씨가 나왔고 소방청에서는 소방담당자까지 나와서 현장을 안내하며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자세한 사업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이곳도 토론토 시청 앞 ‘지하도시 PATH’와 같은 맥락으로 추운 날씨를 피하기 위하기 조성되었고 그러다보니 토론토 시의 핵심 오피스 빌딩들이 집중된 이 지역의 모든 건물들과 지하를 연결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특히 일상생활과 밀접한 지하철역이 10개, 버스터미널 2개, 기차역이 2개, 호텔이 9개, 지하 주차장이 약 43개가 연결되었으며 쇼핑몰에는 상점이 1,700개 레스토랑 200개, 영화관 34개, 은행 45개 등 생활과 밀접한 복합시설 등으로 도심오피스의 약 85% 상가의 약 35%가 연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현재 하루 방문객이 약 50만명이 되는 대규모 지하공간 변모 해가고 있다고 합니다. 이곳은 토론토 시 보다 쇼핑몰 위주가 아니고 주민들의 휴식 공간이나 문화공간들이 군데군데 많이 조성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현재 우리 서대문구가 추진하려는 홍제 언드그라운드시티 사업의 목적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두 곳의 지하도시를 방문 해 본 결과 서대문구에서도 현재 이와 비슷한 사업인 홍제 언드그라운드시티를 구상하고 있지만 사업지역의 여건이나 환경을 검토 해보면 이 지역처럼 조성되기가 어려울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원인은 조성하려는 인근에 큰 건물들이나 쇼핑몰들과 연결할 만

인프라가 부족하고 지하도시내에도 쇼핑몰이나 문화공간도 조성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 할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400억이 란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사업을 추진 한다고 해도 오로지 지하통로 만 될 우려가 있을 것 같아 과연 성공적인 사업으로 될수 있을지 의문 이며 특히 실효성이나 사업 효과가 우려된다고 생각되기에 철저한 사 업 검토와 분석을 해야 될 것 같았습니다.



토론토 PATH 진입 전 설명



몬트리올 RESO 내 연결통로

이어서 다른 도시재생분야 기관방문지로 미국 보스턴 시에 위치한 ‘도시 재개발청’을 방문하여 이 기관 관계자인 한국인 임태영 (Senior Development Finance Manager)씨와 도시재생사업에 관 하여 많은 토론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무엇보다도 한국인이 직접 나와 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기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며 특히 이 기관은 약 200여명의 도시 재생의 전문가들이 근무 하는 국가기관이라고 합니 다. 주력 사업은 보스턴시의 세금 기반확대, 민간 일자리 확충, 기존 사 업장 진출 및 촉진으로 지역 사회와 함께 지역사회의 미래개발계획수립, 건물 높이와 밀도 한계파악, 지속 가능한 개발과 탄력적인 건설에 대한 과정 계획 수립으로 무작위 재발을 방지하며 난개발을 방지하고 있는 공기업 역할을 충실히 한다고 하며 그 결과로 현재와 같은 보스턴 도시 를 조성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성공과정은 낙후된 지역을 시민과 시민단체들과의 논의와 협의 를 통하여 성공적인 도시 재생과 지역 경기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것은 우리나라에서 추진하는 도시계획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들과 너무나 상충한 것 같았고 조만간 반드시 도입하여 꾸준한 정책실현으로 현재 서대문구 실시하는 시민단체 주도로 실시하는 도시재생사업에 이러한 성공사례들을 벤치마킹하여 도시재생사업을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았습니다.

또한 뉴욕 도시재생사업으로 ‘시더하이라인’을 방문해 보니 철거 위기에 처한 고가철도를 비영리 단체인 ‘하이라인의 친구들’이 철거 직전에 이곳의 독특한 조망권을 앞세워 공원화하여 수많은 관광객을 비롯하여 가족들과 친구, 연인들이 찾아오는 관광지로 각광 받고 있는 뉴욕에서 대표적으로 성공한 도시 재생사업 사례로 손꼽히고 있습니다. 이 사업으로 인하여 약 1만2천개의 일자리를 창출 하였고 경제 효과는 약 20억달러 정도 되는 뉴욕시의 랜드마크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이와 비슷한 사업으로 서울역 앞 고가차도에 조성 한 것과는 너무나 차이가 나고 비교가 되질 않아 흉내만 내는 졸속 정정이라는 느낌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의 성공 사례인 ‘뉴욕 첼시 마켓’을 방문해 본 결과 깜짝 놀랐습니다. 1890년대 중반 점차 황폐화가 되어가는 이곳 비스켓 공장에 코헨투자자로 인해 ‘첼시마켓’을 조성하여 건물을 변모 시켜서 도시재생사업으로 성공한 모범 사례인 것 같았습니다. 사업취지를 살펴보면 본래의 공간을 최대한 복원하고 살리는 것에 집중하였던 것 같았고 이곳에다가 주민 생활 밀착사업인 실내형 식료품 마켓으로 변모 시켜서 성공한 사례였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는 많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모여드는 명실상부한 랜드마크로 변모하여 지역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기관방문으로 미국 뉴욕에 위치한 ‘뉴욕공립도서관’을 방문하

였습니다. 무엇보다 입구부터 줄을 설 정도로 많은 주민들이 이곳을 방문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이 도서관은 미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서관으로 세계 5대 도서관으로 손꼽히는 한 곳으로 하얀 대리석 건물로 되어 있으며 책꽂이 길이만 총 120km나 되며 약 5,000만점의 도서와 소장품이 보유 되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장대한 장서를 검색 할 수 있는 도서 검색 시스템은 세계에서 최고의 속도를 자랑하며 원하는 책을 약 15분 안에 바로 찾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책을 매개체로 하여 주민들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발히 활용되고 있는 것을 반드시 벤치마킹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이 도서관 방문을 계기로 문화 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운영 실태를 현장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선진 도서관 운영사례와 검색시스템 및 책을 매개체로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방안에 대한 벤치마킹을 할 수 있었습니다.

종합적으로 이번 해외비교 공무출장은 어느 때보다 더욱 알차고 내실 있는 연수 기간이라 자부하며 주민들이 우려하는 외유성 관광위주라는 오명을 해소하는 계기 되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이번 연수를 통하여 방문지의 성공사례나 정책 등 현장에서 보고 느끼고 배운 것을 최대한 벤치마킹하여 서대문구 발전에 어떡하면 접목 할 수 있는가 연구하고 정책 개발하여 서대문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의정활동에 반영하도록 계속 노력 하겠습니다.

향후 연수 때에는 좀 더 내실 있고 알찬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세밀한 분석을 통해 우리 서대문구와 유사한 시설이나 정책 등에 반영 적용 가능한 현실적이고 정책에 도움이 되는 연수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선진의회에서 배우는 정치의 품격

박경희 의원(의회운영위원장)

구의원이 된 이후로 다섯 번째 국외출장을 다녀왔습니다. 이번에는 각 의원마다 역할을 나누고 기관방문지를 대폭 늘이는 등 나름 준비를 더 철저히 하느라 노력했습니다. 저는 특히 선진 의회 운영시스템에 대한 부분을 맡기로 하였기에 방문지의 의회와 정치를 중심으로 보고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들이 방문한 의회는 캐나다 연방의사당과 미국 저지시티 의회 두 군데였습니다. 미국 보스턴 재개발청을 방문이 끝나고 나오면서 같은 건물 내에 있던 보스턴시 의회를 잠시 방문하기는 했으나 회의장만 잠깐 본 수준이기에 따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먼저 방문한 캐나다 연방의사당은 캐나다의 수도 오타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타와는 온타리오 주에 남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나 영어권과 불어권의 중간의 의미라고 보면 될 겁니다. 위치는 온타리오 주의 핵심 도시인 토론토와 퀘벡 주의 최대도시 몬트리올 사이에 있고 문화적으로도 영어권인 온타리오 주와 불어권인 퀘벡 주의 중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특성 때문에 캐나다의 수도를 정할 당시 주요 도시간 치열한 경쟁 속에서 수도로 결정난 것입니다. 1858년 영국 빅토리아 여왕에 의해 수도로 결정났지만 아직도 캐나다의 경제나 문화의 중심은 토론토와 몬트리올이라 볼 수 있습니다. 오타와는 사실상 행정수도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역사적으로 영국과 프랑스 간 전쟁도 치렀고 현재도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다소간의 갈등(또는 경쟁)이 지속되고 있는 특성이 있습니다. 실제로 퀘벡주 사람들이 두 차례에 걸쳐 분리독립을 위한 운동과 투표를 시도한 것은 그들이 느끼는 차별과 소외감이 아직도 잠재되어 있다는 반증일 것입니다. 비록 실패로 끝났지만 현재도 퀘벡주의 선거결과에 따라 분리독립의 논의가 한 번씩 오르내리곤 한다고 합니다. 이런 잠재된 갈등상황에서도 캐나다가 안정된 정치를 바탕으로 세계적인 선진국 지위를 지키고 있는 것이 캐나다 정치의 저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캐나다의 정치는 입헌군주제, 의원내각제, 양원제로 운영됩니다. 군주는 영국의 여왕이고 내각의 이름은 “여왕폐하의 정부”라고 합니다. 민망한 일이지만, 캐나다의 국가수반이 영국여왕이라는 사실을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캐나다의 군주가 왜 아직도 영국여왕이지?’, ‘무슨 사연이 있었길래?’ 라는 생각과 함께 캐나다의 역사와 정치에 호기심이 생길 수밖에 없게 됩니다.

한편으론 그만큼 군주의 역할과 위상이란 것이 형식적이라는 반증이기도 할 것입니다. 영국여왕이 임기 5년짜리 총독을 임명하지만 그 총독 또한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법적으로는 총독에게 의회해산권 등 강력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의회나 내각의 요청이 있을 때만 명목적으로 승인하는 형식적인 권한에 불과합니다. 예전엔 여왕의 명을 받은 영국인을 총독으로 임명했으나 현재는 캐나다 사람을 임명합니다.

우리가 방문했을 때 오타와 연방의사당은 공사 때문에 잠시 임시청사에서 의회가 열리는 상황이었습니다. 상원과 하원이 각각 다른 건물을 썼는데 우리 연수는 상원이 자리잡은 임시청사에서 이뤄졌습니다. 원래의 연방의사당이 일반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는 명소로 유명한데 임시

청사도 일반에 개방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되 보안검사가 철저했습니다.

상원의원은 105명인데 회의장에 자리는 여전상 105개가 조금 안된다고 합니다. 한 눈에 봐도 매우 좁고 오밀조밀해서 우리 국회와 비교하면 사실 소박하고 초라해보일 정도입니다만, 그것이 의회 민주주의의 종주국인 영국의회의 모습과 유사한 것을 보면 그들의 실용주의 문화가 새삼 부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상원의 역할은 하원에 비해 보잘 것 없습니다. 의원내각제 국가에서 실제로 내각을 구성하는 것은 하원입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상원은 국민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기가 종신(75세 정년이 있을 뿐)이고 결원이 생길 때마다 총리가 임명하여 보충하고 있습니다. 하원이 만들고 의결하여 올리는 법률 등을 상원은 형식적으로 통과시키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이런 부분은 상원의 위상이 하원보다 높은 미국과 대비되는 지점입니다.

우리나라 같았으면 당장 상원 없애라는 여론에 직면했을텐데, 왜 양원제를 고집하고 투표조차 하지 않는 걸까요? 아마도 영국여왕을 형식적이지만 수반으로 모시는 캐나다의 역사와 전통에 기인하는 측면이 크다고 봅니다. 또한 상원을 국민적으로 존경받을만한 사람을 숙고하여 임명한다고 하니, 존재 자체가 국민을 통합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법적으로나 실질적인 강력한 권한은 없을지라도 캐나다 정

치와 국민통합에 기여하는 바가 분명 클 것이라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미국 뉴저지주의 저지시티 의회입니다.

먼저 미국의 정치를 언급하자면, 미국은 연방을 바탕으로 하는 공화제로서, 연방의 3권분립과 더불어 강한 독립성을 자랑하는 주정부들이 존재하고 주정부 또한 3권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연방헌법에 열거된 사항 외에는 권한이 없고 주마다 자신들의 헌법을 가지고 재정, 조세, 입법에서 독립성을 가지며 연방의회와 대부분의 주의회는 양원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통령은 각 주에서 선출된 선거인단이 뽑는 간접선거 방식이지만 선거인단을 뽑을 때 미리 정당별로 후보를 지명하 되므로 주마다 직접 대통령을 뽑은 후 이를 합산하는 형태인 변형된 직접민주주의라고 봐도 될 것입니다.

연방의회는 양원제로 운영합니다. 연방의회의 상원은 6년 임기의 100명으로 구성되며 인구와 상관없이 주마다 2명을 선출하고 2년마다 정원의 1/3씩 선거로 교체됩니다. 하원은 임기 2년으로 총 435명이며 인구 비례로 정수를 배분합니다. 즉, 상원이 주를 대표하는 개념이라면 하원은 하원은 대한민국 국회처럼 국민을 대표하는 개념입니다.

상원은 군대파병, 조약 승인 등의 권한을 가지고, 직접 법을 만드는 경우보다는 하원에서 만든 법안을 통과시키거나 수정해서 하원으로 돌려보내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실질적인 권한을 갖는 것이죠. 주의 위상이 높고 이를 바탕으로 한 연방제국가이다 보니 주를 대표하는 상원 또한 실질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대부분의 법안을 하원에서 만들지만 임기나 의원 숫자에서의 희소성 등으로 인해 상원의원의 위상과 하원의원의 그것은 크게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실제로 유력 대선후보들은 대부분 상원의원들이 차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지시티는 뉴욕 맨해튼과 강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어 면적은 작지만 인구가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그만큼 주차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인구 26만이므로 우리나라로 치면 기초의회 규모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시의회의 의원 수는 9명인데 그 중 6명은 지역구 의원이고 나머지 3명은 비례대표 개념입니다. 시청 청사 내의 한 칸에 의원들의 사무실이 있고 의원마다 두 명의 보좌관을 두고 있습니다.

설명에 의하면 시장과 하나의 팀을 이뤄서 선출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와 달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대립하고 견제하는 관계가 아니라 하나의 팀처럼 구성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의회가 만드는 법안들은 시장의 관심사를 뒷받침하는 경우가 많고 시장이 제출하는 법안도 쉽게 통과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관대립형 구조를 두고 있는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잘 이해가 안가는 부분입니다. 시장과 의회가 한 편이 되어 주민의 의사에 반하는 법안을 밀어붙이면 누가 막고 견제할 수 있을까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추가설명을 들으면서 조금은 의문이 해소된 부분도 있습니다. 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제도가 있는 것이지요. 회의장에 주민들이 참여해서 찬반 토론에 적극적으로, 시간 제한없이 토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과가 되면 이를 반대하는 주민들의 연서로 그 시행을 막아내기도 한다고 합니다. 과거 동상을 철거하고 그 자리를 개발하려는 시장에 맞서 주민들이 막아낸 사례가 있었고 지금도 유사한 사례가 진행중이라고 합니다.

우선은 합리적인 대의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예외적으로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많이 심어놓아 대의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2조원이 넘어 우리 서대문구의 세 배 수준의 재정규모를 갖고 있는데, 가장 많은 재정이 투입되는 곳이 소방과 경찰행정이라고 하니 소방은 광역자치단체가, 경찰은 국가가 관할하는 우리나라와 제도가 다른 데 기인한 측면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프랑크 케인 전 시장의 집무책상>

특이했던 것은 저지시의회 로비에 책상이 하나 전시돼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과거 부패로 유명했던 프랑크 케인이라는 시장이 쓰던 책상인데 항상 대화 시작 전 그 책상의 서랍을 열었다고 합니다. 돈봉투를 넣으면 그제서야 일 얘기를 하였답니다. 부패했던 과거를 상징하는 인물을 드러내어 전시함으로써 스스로를 경계하는 교육자료로 삼을 줄 아는 정신적 수준과 문화는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예전에 다녀왔던 국외출장과 비교하자면 이전에는 피치 못할 사정이 있는 분들을 제외하고는 매번 한 팀으로 다녀왔었는데 올해는 처음부터 팀을 나눠 계획하고 실시한 국외출장이었다는 점입니다. 그 사이 의회를 바라보는 주민의 눈높이가 높아졌고, 그만큼 의원들도 이전보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한 출장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기대만큼 빠르고 급격하진 못해도 조금씩 조금씩 변화하고 발전하려는 서대문구의회가 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 다음 국외출장도 올해보다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며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합니다.

제8대 첫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와서

-한미 어르신들의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소회-

김해숙 의원(행정복지위원장)

제8대 의회가 개원하여 처음으로 실시하는 공무국외출장을 준비하며 선진국가 주요도시를 방문하여 우수한 사례를 경험해 보고자 8박 10일간 캐나다와 미국의 주요도시를 다녀왔습니다.



여러 방문지 중에 본 의원은 평소 복지분야, 그 중에서도 노인복지분야에 많은 관심을 갖고 활동하였던 바, 미국 뉴저지주의 피스카타웨이 시니어센터 방문에 대한 견학보고와 함께 우리 구의 종합노인복지관을 방문하며 느꼈던 운영방식과 비교해서 보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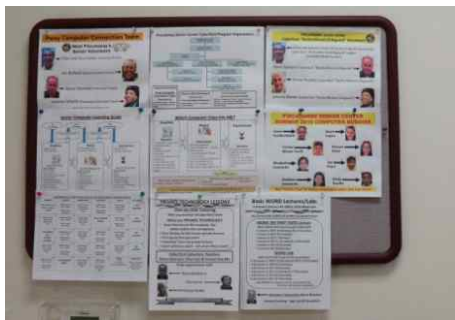
먼저 이른 아침 방문한 피스카타웨이 시니어센터는 마당이 넓은 공간에 1층 건물로 아늑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이미 많은 어르신들이 홀에 오셔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현장방문을 한 그 날 이 아침 예방접종 중이어서 많은 노인들이 한쪽 방에서는 예방접종 중이었습니다. 시니어센터에서 의료서비스도 지원하는지 궁금하여 물어보니 노인 예방접종은 센터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아니고 국가사업인데 단지 접종 장소로 제공하여 서비스하는 것 뿐이라고 합니다. 의료관련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고 시니어센터는 노인의 활동을 통한 행복한 삶에 지향을 두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피스카타웨이 시니어센터의 시설 책임자인 Amy S. Bauman씨와의

간담회를 통하여 노인복지분야에 대해 설명을 하고 토론을 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피스카타웨이 시니어센터는 60세 이상의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누구든지 원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고, 아침과 점심까지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물론 참여를 원하지만 거동이 불편한 주민들은 버스를 이용해 모두 픽업도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르신 주민들 중에 병원을 다녀와야 되면 약간의 경비만 지불하면 병원 까지도 픽업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세금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특이할 것은, 대부분의 비용이 무료이지만 일부 자부담을 하는 경우에도 이를 기부금 방식으로 받는다는 것입니다. 즉, 강제로 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필요한 서비스에 돈을 낸다’가 아니고 ‘국가로부터 무료지원을 받고, 난 사회에 환원한다’는 개념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방식이 우리나라에도 통할지 확신은 없지만 시험적으로 시도해볼 만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오픈시간은 기본적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센터의 운영 목적은 궁극적으로 노인들이 낮동안 센터에서 편하게 지낼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 센터의 어르신들은 매우 여유있어 보였습니다. 식사를 하려고 줄을 서신 모습과 유수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어르신들 모두 여유가 있었습니다.



자원봉사자와 프로그램을 안내



컴퓨터 수업장

그리고 센타 이용객 중에 한국인도 쉽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자원봉사 강사로 참여하시는 분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이후 강의가 있어 아쉽게 헤어졌지만 이어 일반 이용객 중에 한국이민자들이 있어 만나서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70대의 한국이민자는 한국에서 이민온 지가 40년이 넘었는데, 요즘은 낮시간에 내가 시니어센타 오고 싶으면 언제든 와서 하고 싶은 것 다 하고 사니, 너무나 행복하다고 합니다. 더욱이 나이가 드니 세금도 많이 줄어서 더 살기가 좋아졌다고 하며, 경제적인 부담도 많이 줄었다고 하였습니다.



반갑게 맞이해주신 한국어르신과 함께

시니어센터의 성비는 70 : 30 정도로 할머니가 7 할아버지들이 3이라고 하는데, 이는 우리나라 경로당과 종합노인복지관의 이용 성비와 비슷하다고 느꼈습니다.



시니어센터장 Amy S. Bauman씨

Amy S. Bauman씨는 시니어 센타를 시에서 운영하는 가장 큰 이유는 동네사람들이 친숙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낮에 생활하는 것을 중요시하여 소일하고 즐겁게 사시게 만드는 것이어서 노인들의 행복수준을 높이기 위해 센터를 운영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노인들의 행복수준을 높이기 위해 식사도 모든 영양소가 잘 섭취되도록 메뉴를 짜고, 여가 프로그램도 운영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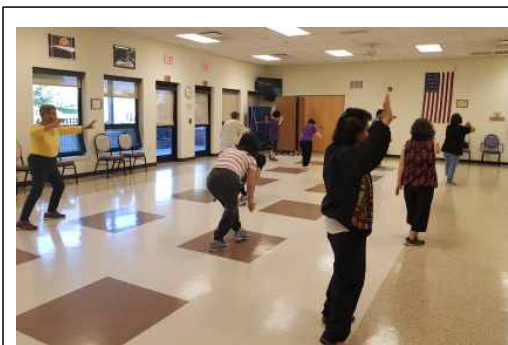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는 문화 강좌나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면 약간의 수강료를

부담하고 사전등록도 해야함에 비해, 시니어센터는 거의 모든 강사들이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되어 전액 무료로 운영되고 본인이 원하기만 하면 모두 참여할 수 있다는 점이 우리나라와 달라보였습니다.

더욱이 은퇴자들이 그들의 경력에 따른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 노인들에게 교육하는 모습은 매우 신선하였고, 은퇴자들이 은퇴 후 새로운 보람을 느낄 수 있고, 이용 주민들도 새로운 것을 배우면서 서로 교류할 수 있다는 점이 아주 좋았습니다.

피스카타웨이 시니어센터에서 보고 느낀 운영방식은 최대한 우리 서대문구 발전에도 접목해 볼 수 있도록 더 연구하고 정책개발을 하여 의정 활동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단순히 약자니까 돌봄을 받는다거나, 노인들이 머물만한 시설을 제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좀 더 높은 차원의 노인복지는 그 분들이 무언가를 배우고 활동하며 교류하는, 노인이기 전에 인간으로서의 사회적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물질적, 문화적, 시민 의식적인 노력이 뒷받침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대문구에서 노인들이 즐겁게 활동하게 하여 최대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나 정책을 마련하는데 보다 관심을 가지고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중인 어르신들



태권도 프로그램 행사기념 티셔츠를
자랑하는 자원봉사자 어르신

공무국외출장 방문지별 연수결과 및 시사점

이동화 의원(재정건설위원회)

처음으로 공무국외출장이란 걸 가는 날이 다가올수록 부담과 책임감이 더 커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지하도시 유지관리 기관에 대한 보고를 맡았지만, 보다 자유롭게 쓰자는 의견에 따라 제가 방문했던 주요 기관에 대한 저의 생각을 다 기록하되 맡은 부분은 좀 더 자세히 기술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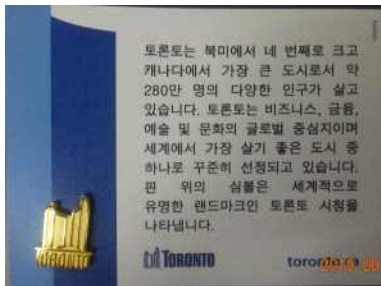


1. 토론토 시청(노인복지부서)

토론토시의 선진 복지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우리 구의 지역 사회보장계획과 비교하여 시스템상의 차이를 확인하고 특히, 삶의 주기별 일반 복지시스템을 기반으로 하여 복지예산의 규모 및 복지시설 건립 및 운영을 위한 예산의 배분과 활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토론토의 복지는 교통복지와 주거복지에 큰 강점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토의 지정학적 위치 상 겨울에 영하 40도를 넘는 혹한의 추위가 덮치고, 또 눈이 많이 내려 상당량의 염화칼슘을 사용하여 도로의 눈을 녹이기 때문에 도로가 갈라진 부분이 많지만 매년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 보수가 현실적으로 힘든 부분이 많이 보였습니다. 그 대신 토론토시에서는 TTC(토론토 교통공사)라는 공기업체를 운영하여 교통복지에 힘을 쓰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많은 예산이 TTC에 할당되고 있으며 이는 토론토의 특성을 감안해본다면 효율적인 예산의 배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보호시설 및 주택사업에 그 예산의 배분을 늘리고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의 주거문제에도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토론토시에 실정에 맞는 특

성화 복지라는 시스템에서 큰 강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체험했고, 대다수 주민들의 생활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교통복지와 함께 큰 연교차로 인해 생존권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저소득층의 보호시설 및 주택사업에 토론토시의 역량을 집중하는 부분이 토론토 특성화 복지의 강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구의 실정을 고려하여 벤치마킹하



기념으로 받은 토론토시청 배지

기 위해서는 주거취약계층이 많아 복지사각지대가 생기기 쉬운 현 상황에 맞춰 현재 진행하고 있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를 위시한 지역사회 복지안 전망 강화사업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야합니다. 더불어 강점을 가지고 있는 IT인프라의 활용을 통하여 스마트한 복지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을 꾸준히 한다면 우리구 복지의 시급한 문제는 해결하고 그 미래까지 내다볼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2. 토론토 패스(PATH)

현재 계획 및 타당성 용역단계를 거치고 있는 [홍제역 지하보행 네트워크]와 관련하여 대규모 지하공간에서의 재난관리 시스템과 시설물 운영 및 안전관리 현황을 확인하고 지하공간 개발과정에서 민간·공공 부문간 협의 및 역할 조정 방법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지하도시 유지관리기관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가]를 중점으로 확인하였습니다.

토론토의 패스는 총 길이 72km, 총 면적 321,600m²으로 세계에서 가장 긴 지하 복합쇼핑몰입니다. 입점해있는 상점만 약 1200개가 있는 거대 지하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이점으로는 75개 이상의 건물, 3개의 백화점, 9개 호텔, 6개의 지하철역, 유니온 기차역이 연결되어 있어 교통이 편리하고 지상의 건물들과 연계가 잘 되어있는 점을 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지하공간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로는 첫 번째, 토론토 겨울의 추위에 대비하여 주민들의 보행권 및 교통권 확보를 들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인구증가와 산업발달로 포화된 지상공간의 대체공간으로 기획되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패스는 1억 달러 이상의 고용소득과 4,600명 수준의 고용자를 창출하고 있으며 여기에 세계에서 가장 긴 지하복합쇼핑몰이라는 명성이 더해져 관광효과까지 내고 있습니다. 패스는 전체적인 유지·관리는 토론토 시에서 맡고 있으며, 개별 건물들과 그 연결부분은 민간에 의해서 유지·관리되고 있었습니다. 전체적인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 시스템은 토론토시에서 관리하여 그 안정성을 확보하고, 운영 부분에서는 민간과 협력하여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관의 부문 간 협의 및 역할 조정은 모범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주민들의 보행권 확보를 위한 토론토시의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단지 지하도보가 아닌 지상과 연계된 복합쇼핑몰을 건설하여, 지하보도의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치안 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구와 같은 경우에도 미세먼지나 폭염, 폭설과 같은 환경요인에 대비하여 구민의 보행권을 확보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그 시행방법을 지하보행으로 한다면 치안, 온도, 공기의 질 등을 모두 고려함과 동시에 사업성까지 고려해야 할 것입니다.



PATH내 거리 안내판



이동중 설명

3. 나이가가라 하수처리장

지역수질관리 방안에 대해서 알아보고 비상상황실 등 관리시스템의 현

황을 파악하고 수도 인프라 및 지역 성장 계획을 포함한 나이아가라 2041 통합 프로세스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수도인프라와 지역성장 계획을 어떻게 연관시킬 수 있을까와 비상상황실 등 관리시스템의 관리 현황은 어떠한가를 중점으로 확인하였습니다.

[HOW WE GROW], [HOW WE FLOW], [HOW WE GO]의 세 가지 표어와 함께 진행되고 있는 나이아가라 2041 통합 프로세스는 나



하수처리장 전경 사진

이아가라 지역의 특성을 잘 활용한 지역 성장 계획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상·하수도 시스템을 발전시켜나갈 것인가에 대한 계획, 나이아가라 폭포라는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관광을 위한 교통의 현황과 어떻게 발전시켜나갈지에 대한 고민, 이와 함께 주택 문제 해결, 인구 성장, 그리고 고용 증진을 통한 나이아가라 지역의 전체 성장의 동력을 찾는 통합시스템은 관광자원과 수자원을 모두 가지고 있는 지역의 특성을 최대화하

는데 최적화된 프로세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한 안전과 관련하여 비상상황이 일어나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비상상황실 같은 경우 준비가 잘 되어있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 긴급의료상황에 중점을 두고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4. 몬트리올 RESO

네트워크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réseau에서 의미를 딴 몬트리올의 RESO는 지하도시와 실내도시의 복합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토론토의 PATH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혹독한 기후조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건설된 점이나 지하공간과 지상공간의 복합체라는 점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습니다. RESO의 재난관리시스템과 지하공간개발과정 등을 살펴 보아 우리 지역에 접목시킬 수 있는 부분을 알아보고자 했습니다.

RESO는 전체 길이 32km의 지하복합쇼핑몰로 도심오피스 공간의 85%, 상점의 35%가 연결되어있다는 점을 특징으로 들 수 있겠습니다. 몬트리올 지하철의 개통, 그리고 1967년 엑스포와 함께 확장되었다는 점 또한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공공부문에서 민간부문과 함께 개발한 프로젝트여서 지하공간과 지상공간의 입체적 복합성이 체계적으로 형성되어있습니다. 지하공간과 지상공간의 입체적 복합성은 공공부문의 주도로는 만들어지기 힘들고, 민간부문에서 필요성에 대한 공



주요건물을 안내하는 방향표지판



설명을 듣고 있는 의원님들

감대 형성을 통해 개발이 이루어져야 완성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PATH와 비교해보자면 RESO같은 경우에는 도심오피스 공간과의 복합성을 강조한 경우이며, 지하공간의 개발을 통해 주민들의 보행권을 보장함과 도심오피스 공간까지의 출,퇴근을 자유롭게 하여 주민들의 생활수준을 높이고 추운 겨울과 같은 환경적 요인이 지역경제발전에 줄 수 있는 변수를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되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하도시 재난관리 시스템과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의 안전과 함께 생활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며, 또한 업무지구가 집중되어 있어 영향력이 큰 상황이므로 재난 관리와 같은 큰 틀에서는 공공부문에서 관리를 하며, 유지·관리시스템과 같은 경우는 민간부문과의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5. 보스턴 도시재개발청

보스턴 도시재개발청을 방문 한 것은 낙후된 지역을 시민과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과의 논의와 협의를 통해 성공적인 도시재생으로 지역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사례로 파악하고 정책실현 과정과 정책유지과정을 확인하여 복합적이며 꾸준한 정책실현을 가능하게 했던 원동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방문하였습니다.

보스턴은 1990년대 이후 공장 및 기업 위주의 지역경제가 탈산업화 되면서 도시 슬럼화 등의 문제를 겪게 되어 지역이 급속도로 낙후되는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스턴 도시재개발청의 특징은 건축/경제/인문 분야의 전문가가 근무하고 있으며, 종신보직제 적용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시계획을 통해 정책을 수립하고 있으며, 저렴한 주택제공, 인력 양성을 기반으로 지역사회와의 논의와 협의를 통해 다방면의 대안을 마련하는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주민, 시민단체가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와 함께 도시재개발에 미래계획을 세우고 지속 가능한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는 1990년대 이후 낙후된 지역이 급속도로 생겨나게 되면서 도시재개발의 필요성에 주민, 시민단체, 공공부문에서 공감대가 생겼고 이를 실현하는 과정이 지역사회와 공공부문이 함께 정책수립, 정책실현, 정책유지에 협업하여 정책의 일관성이 지켜질 수 있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종신보직제 등의 제도는 이를 도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의 낙후된 지역의 도시재생사업에서도 공감대를 기반으로 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그 결을 함께 할 수 있다면 보스턴 도시재개발청의 사례는 공공민간협동개발의 좋은 사례로 많은 부분을 벤치마킹 할 수 있겠습니다.

6. Piscataway Senior Center

Piscataway Senior Center는 뉴저지에 위치한 어르신복지관으로 60세 이상의 성인들의 지역사회 참여를 장려하고 서비스와 활동을 제공하는 곳입니다. 어르신들에게 접근성이 떨어지는 컴퓨터나 인터넷 관련 기술교육, 사교댄스나 요가 등의 체육 프로그램과 주기적인 여행을 포함

한 데이케어센터 특화프로그램에 주목할 수 있었습니다. 거기에 더해 주기적인 상담을 제공하고 거동이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 무료로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등 니즈에 맞춰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 프로그램들은 우리 구의 실정에 맞춰 운영한다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7. 뉴욕공립도서관

세계 5대 도서관 중 하나로 뉴욕을 대표하는 도서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5000만점의 도서와 소장품을 보유중이며 책을 매개체로 도서관을 주민의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하고, 문화 복지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및 운영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뉴욕공립도서관은 방대한 소장자료 뿐만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기초적인 언어학습 프로그램, 컴퓨터 활용, 진로탐색 등 성인대상 프로그램과 유아와 청소년을 위한 교육, 학교에 사서들이 방문하여 도서관 관련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거나 찾아가는 도서관 등의 프로그램과 함께 전시회나 음악회, 저자와의 대화 등의 다방면의 문화 복지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중이었습니다. 또한 뉴욕지역의 지역도서관등을 잇는 커뮤니티 활동과 이미 언급한 성인 대상 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에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성인대상 프로그램과 지역도서관의 연계는 현대 도서관의 나아가야할 방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글을 마치며...

이번 출장에서는 지하도시 유지·관리기관을 중점으로 지역 실정과 특성에 맞는 적용가능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특히 토론토의 PATH와 몬트리올의 RESO에서 그 의미를 찾고자 했습니다. 토론토의 PATH와 몬트리올의 RESO는 각 도시의 기후환경에도 불구하

고 주민들의 보행권과 생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기획된 프로젝트로 그 목적을 달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 두 지하도시 프로젝트의 경우,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에서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개발과정에서 민·관의 협력이 입체적으로 이루어져 그 효용이 더욱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지하도시의 유지·관리에 있어서도 맥락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한 쪽의 일방적인 주도로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유지·관리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지하도시 프로젝트의 경우 단순히 지하 도시로는 그 효용성이 극대화하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고, 지하도시와 지상도시의 입체적 복합성이 합쳐지는 것을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경우 민·관의 협력이 더욱 절실해집니다. 또한, 안전과 관리의 문제에서도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에서 각자의 맡은 바를 다 하여야할 것입니다.

지하도시 개발에 있어서도 공감대 형성에 기본이 된 주민들의 보행권과 생활권 확보에 더욱 힘을 쏟아야할 것입니다. 우리 구를 예로 들자면, 봄철의 미세먼지나 겨울철의 추위 등 환경문제에서 그 공감대를 함께하고, 여기서 보행권과 생활권 확보를 기반으로 하여, 지역공동체적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다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보스턴시 도시계획개발청 방문 보고서

김덕현 의원(재정건설위원회)

I. 서론

2019년9월 26일부터 7박10의 일정으로 캐나다와 미국으로 공무 국외 출장은 선진국의 시설을 둘러보고 직접적인 체험과 경험을 통한 벤치마킹을 위한 주요기관 및 시설을 방문하여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천연,충현 도시재생사업 정책에 적용가능 기초 자료를 수집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방안을 찾아 보다는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한 일정이었다. 그 세부적인 내용을 아래와 같이 열거하고자 한다.



II. 본론

먼저 저에게 주어진 과제는 보스턴 재개발청 자료수집 및 선진사례 벤치마킹이었다. 기관 방문으로 보스턴 도시 재개발청을 방문하여 보스턴 계획 개발팀에 임태영 선임 재무관리자로부터 보스턴의 재개발의 스토리를 들어 볼 기회를 가지면서 보스턴의 역사와 문화 경제에 대하여 알아보면서 보스턴은 미국의 역사와 교육을 대표하는 도시다. 세계 최고의 인재들이 모인 하버드, MIT 등 다수의 명문대와 명문 고등학교가 있으며, 미국의 독립선언서가 발표된 지역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물론 세계 각국에서 우수한 학생들이 모여들면서 꾸준히 인구가 유입되고, 여기에 대학교와 관련한 각종 연구기관과 기업까지 몰려들며 성장한 지역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보스턴 역시 1990년대 들어 도시 탈산업화 이후 다양한 문제점을 겪게 된다. 공장과 대규모 기업들이 있던 도시가 슬럼화된 것이다.

이를 탈피하기 위해 보스턴은 시가 주도적으로 재개발청(boston redevelopment authority)을 창설해 도시재생 계획을 세워 나가기 시작했다. 이들의 도시재생 계획은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그리고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자연 요인까지 고려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대학, 병원, 그리고 자연 지형이 풍부하게 혼합된 역사적 장소이기에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이 기관에서 이뤄졌다.

또한 도시 재생을 기획할 때 개발 검토부터 다양한 분석이 이뤄졌다. 각 분야의 연구원은 지역, 기관, 또는 물가 계획에 대한 프로젝트 제안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발자와 함께 일을 했다. 특히 환경 개발 및 교통 부서를 포함해 다른 부서와 긴밀하게 교류한 것은 물론, 교통 개선을 실행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들이 나왔다.

이렇게 해서 탄생된 정책이 보스턴 ‘로즈 피츠제럴드 케네디 그린웨이’이다. 1952년 건설된 보스턴 도시고속도로(Central Artery)는 초기에는 하루 통행량이 7만5천대에 불과했으나, 80년대 들어 20만대로 늘었다. 때문에 환경오염과 경관훼손 등 문제가 발생했다. 특히 이 도로는 도심과 대서양 연안지역을 단절하여 도시 내 공간을 왜곡하고 있었다.

도시 재개발청은 도심고속도로 12km를 지하화하고, 상부에 선형 공원 설치 사장교인 ‘벙커 힐 브리지’를 함께 건설함으로써 랜드 마크를 형성, 도심경관을 회복했다. 미국 식민지 시절 유산 등의 복원 추진도 이뤄졌다. 이외에도 바다와 도심을 연결하여 보스턴 항구 인근지역 개발을 촉진하고, 도시에 광범위한 공원녹지 확보를 통해 시민들의 만족도를 이끌어 냈다.

그러면 보스턴 도시 계획 개발청을 알아보면 보스턴시 경기 침체와 도

시재생 수요에 대응하여 매사추세츠주 주 의회와 보스턴 시의회가 협력하여 1957년에 독립적 도시계획기구로 설립되었다. 초기 보스턴 계획 개발청은 보스턴의 개발업자들 및 사업체를 설립하는데 있어 절차적 효율성에 초점을 두었으며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재생을 법적 권위를 가지면서 민간공공 협력 사업을 주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기능이 확대되었다.

보스턴 도시 계획 개발청의 설립 배경은 미국의 전반적인 경제적 어려움으로 경기 부양을 위한 개발 사업을 적극 추진하는 도시 정부 차원의 과제가 존재하였으며 공공주택 사업 및 개발 사업들을 주관했던 보스턴 주택인가의 권한은 민간개발에 대한 지침이나 심의 업무에 대한 체계적 권위적 기능을 하기에 부족하여 도시 정부에서도 도시 공간에 물리적 개발 뿐만아니라 기업 활동에 대한 가이드라인 및 개발 사업 육성에 법적인 강제력과 전문성이 요구되었다.

보스턴시는 미국의 주요 대도시에 비해 도시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 정부 차원에서의 개발사업 추진을 통한 개발 영향력 및 파급효과 형성에 유리한 환경적 여건을 가지고 있었다.

보스턴시는 도시계획위원회를 없애고 모든 도시 계획은 보스턴 도시 계획 개발청으로 통합하여 미국 최초로 독자적인 도시 계획 기관으로 건설과 경제발전을 위한 일자리 창출 도시계획 민간과 공공영역 개발사업의 총괄하여 민간토지수용과 공공용지에 대한 자산관리 등을 일괄하는 강력한 권한을 보유하게 하였다. (붙임자료참고)

다음은 보스턴 계획 개발청의 조직과 구성원 그리고 운영에 대하여 알아보자.

현재 보스턴 계획 개발청의 조직은 10개의 부서와 이사회로 구성되며 부서별 팀 단위로 구성 업무특성에 따라 단일팀, 단일부서로 존재하기도 한다. 도시계획, 경제개발 일자리 창출 두 핵심 업무에 초점을 두고 구

성된 보스턴 계획 개발청 조직은 초기에 6개 부서로 출범한 후 400여 명 이상의 인력을 보유하였으나 규모와 신규 사업의 감소로 업무의 효율성과 IT기반업무가 자리 잡으면서 조직 규모가 축소되었다. 보스턴 계획 개발청인력은 대부분 각 부분 전문 인력으로 채용되며 정년의 보장이나 고소득 직업군으로 속하지는 않는다. 다만 의료보험이나 직원복지에는 양호한 환경을 가지고 있다.

보스턴의 재개발 사례를 들어 보면 찰스 타운 네이비 야드 재개발은 보스턴시내 중심부에서 차로 약20분 거리에 찰스강과 미스틱강이 합류하는 지점에 위치하며 과거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해군 조선소가 있던 곳으로 1800년에 조선소가 문을 연 이후 2차 세계대전 이후까지 수많은 전함이 건조되었으나 1960년들어 군수사업이 쇠퇴하면서 버려진 땅으로 전락하게 되었다. 이후 친수형 테마타운으로 개발하자는 계획이 세워져 1976년부터 본격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었다.

보스턴 계획 개발청은 항구주변을 재개발지역으로 정하고 개발 사업비로 5억 달러를 투입하여 대상지를 공원지구 사적보전지구 신규개발지구로 분류하여 재개발사업을 진행하였다. 공원지구와 사적보전지구,주택, 상업,업무,숙박시설용지로 할당하여 공장있던 일부 지역은 그대로 보존하여 박물관으로 재생하고 역사자료를 전시하여 관광자원화로 수입을 올릴 수 있도록 하였다.

찰스타운 네이비 야드는 기존의 필요 없는 시설은 과감하게 철거하되 공원, 사적등 역사적, 문화적으로 의미가 있는 시설은 기존의 지역의 특색을 없애지 않고 개보수하여 사용하면서 신규로 주거지역등을 개발함으로써 철거현 기법과 수복형 기법을 동시에 적용하였다.

또한 공장건물의 용도 변경 개보수를 통한 상업시설과 기숙사들로

용도를 변경하여 활용하였으며 주거지역은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개발 민간사업자들에게 용적률을 높여 임대주택을 짓도록 유도 소셜 믹스방식의 임대주택지역을 공급하고 있어 기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거주권을 보장함과 동시에 도심의 재생을 이루는 방식으로 꾸준히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III. 결론부분 :

찰스타운 네이비 야드는 역사적 지역적 장점은 그대로 살리되 철거형 방식을 혼합하여 도시재생을 취함으로써 활력을 잃은 구도심을 다시 새로운 활력을 지닌 지역으로 재창조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국내의 도시재생사업에도 교훈이 되고 있다.

폐 산업시설을 재개발함에 불필요한 시설은 과감하게 철거하되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기존의 특색을 그대로 유지한 채 리모델링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면 국내에서의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그 예로 순천의 도시재생은 2013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순천만을 보전하기 위해 2013년 순천만 국제 정원 박람회가 열리고 동쪽에는 신도심이 들어서면서 서쪽의 원도심은 쇠락하고 있었다. 원 도심을 살리는 게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져온다는 데 뜻을 모았다.

순천의 원도심은 조선시대 순천부 읍성이 있었던 역사적인 지역이다. 조선시대부터 전남 동부권의 군사, 행정 상업의 중심지였다. 몇백년의 시간 동안 누적된 문화자산도 원도심인 문화의 거리에 남아 있다.

지난 8월에는 4단계 지역인 순천대 일원이 대학 타운형 재생 사업에 선정되는 결실을 얻었다. 300억원을 투입, 2025년까지 원도심 전체를 바꾼다. 순천남초등학교 도시재생은 학교를 재생하는 전국 최초의 사업이다. 빈 교실 등을 활용해 학생들의 창의력을 키워 주는 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

시는 2030년까지 5단계 사업을 추진한다. 신도심 노후 아파트를 대상으로 공동체 회복 등 아파트 재생사업을 통해 도심 전체를 살기 좋은 도시로 만들어 간다는 구상이다. 몇 년 새 열매를 맺고 있다. 2014년 187동에 이르렀던 빈집은 지난해 7동으로 줄었다. 사회적 기업 40개가 운영되며 주민 만족도는 91%에 이른다.

다시 보스턴의 예를 들어보고자 한다. 1918년 미 국방부에 의한 군사 건물을 현재 디자인 센터로 리모델링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한 전총과 첨단 그리고 과거 현재 미래가 조화된 도시로 모습을 갖추 수 있었다. 도시계획은 재개발에 있어서 저소득층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며 주거지역을 재개발함에 있어서 임대주택 건설에는 분양과 임대를 통해 기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의 거주권을 보장하면서 도심을 재생하는 형태를 추진하고 있다.

재개발시 고부가가치의 업종과 저부가가치의 업종의 기능을 유지 하도록 하여 쇠퇴한 사업업단지를 유지함으로써 저소득층의 일자리를 창출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체계적인 계획수립으로 법과, 제도적 운용으로 민간투자를 협력과 역할분담으로 재개발에 최적의 역할이 될 것 이다.

I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보스턴 도시 계획 개발청 자료

첨부 : 보스턴 도시 계획 개발청 설명자료

 Boston Planning & Development Agency 보스턴 계획개발청 March 2019	 1 History (역사)
-1-	-2-
보스턴 계획개발청 (BPDA) BPDA 는 1957년에 보스턴 시와 메사추세츠 주의 법에 의하여 설립된 정부기관입니다. 보스턴 지역 토지사용의 규제기관으로써 BPDA 는 부동산 개발과 관련하여 법적 구속력이 있는 수 많은 결정을 내립니다.	BRA (보스턴 재개발청) 의 역사 1957년에 시의회와 주의회에 의해 Boston Housing Authority (보스턴 주택청) 의 권한을 인수하기 위하여 설립된 이래 공공주택 이외의 분야로 권한을 확장해 왔습니다. 1960년, 주의회에서 통과된 다른 법률에 의하여 Boston Planning Board (계획심의 위원회) 가 BRA 에 통합 되었습니다. 2016년 10월 20일, BRA 는 BPDA 로 개명하여 업무를 시작하였습니다.
-3-	-4-
우리의 비전 함께 보스턴의 미래를 만들어 간다 우리의 사명 BPDA 는 우리 시의 종합적인 성장을 계획하고 지도합니다. - 모두가 함께 거주하며 생업에 종사하고 서로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듭니다. 우리의 미래지향적이고 시 전체를 관찰할 수 있는 렌즈를 통해, 우리는 지역사회를 다루고, 새로운 해결책을 적용하며, 보다 큰 영향력을 확보하고, 진척을 추적합니다.	BPDA는 다음 네 가지 핵심 사업을 통해 보스턴의 경제개발을 추구합니다: 1) BPDA 는 20,000 sf (약 1,858 m²) 이상의 연면적에 이르는 시내의 모든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인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2) BPDA 는 보스턴의 도시계획사업을 시행합니다. 3) BPDA 는 11,000,000 sf (약 1,021,933 m²) 의 부동산을 소유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들 토지 및 건물은 BPDA 에 주택, 일자리와 임차료를 제공하며, 보스턴 시에는 세수입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4) BPDA 는 보스턴 주민들에게 직업 교육을 제공합니다.
-5-	-6-
BPDA 는 다음과 같은 법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1)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의 인허가. 2) BPDA 소유 부동산의 매입, 매각 및 임대. 3) 특별한 경우, 시의 중요 개발사업을 장려하기 위해 시 정부와 협력하여 세금(재산세) 할인을 제공 합니다. 4) 토지의 용도변경 (Zoning change) 을 추천합니다.	BPDA 는 다음과 같은 법적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5) 흔히 않은 경우이지만, 보다 중요한 경제개발의 목표를 위해 시장가격 보상 후 사유지를 수용할 수 있습니다. 극히 드문 경우이지만, 강제수용할 수도 있습니다. 6) 전반적인 광역계획 및 특정지역의 구체화된 지역구획 등 모든 도시계획 시행합니다. 7) 시장가 주택 개발사업에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 포함을 의무화 합니다. 8) 상업시설 개발사업에 보스턴 주민을 위한 직업교육 기금 조성을 의무화 합니다.
-7-	-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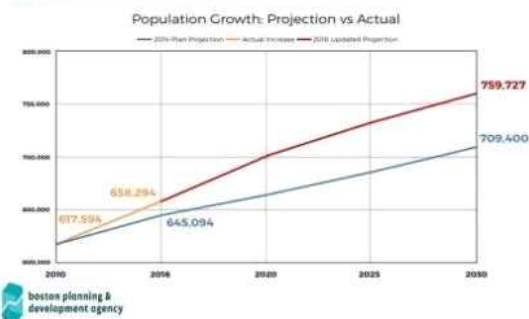


-9-



-10-

Population Growth



-11-



-12-

Planning Studies



-13-

Increased Housing Production Goals



Population Assumptions & Housing Unit Goals	Projected Pop. by 2030	Projected Pop. Growth 2011-2030	New Housing Units Proposed
2014 Plan	709,400	+91,806	53,000
2018 Update	759,727	+142,133	69,000

Boston Planning & Development Agency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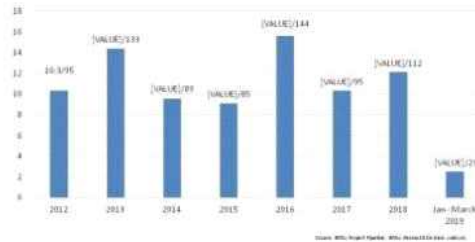


-15-



-16-

Total Area Approved (Million sf/10,000 m²)



boston planning & development agenc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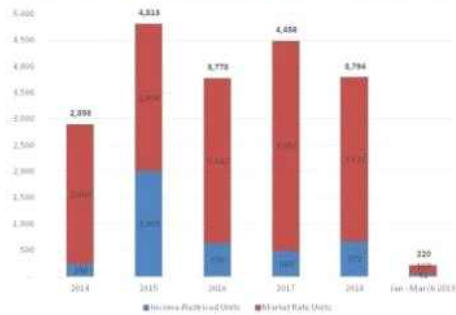
11

-17-



-18-

Units Completed, January 2014-March 2019



2018년 포괄적 개발 정책 (Inclusionary Development Policy, IDP) 연차보고

- 2000년 IDP가 도입된 이후 2,600채에 가까운 저소득층 주택을 건설하고 미화 137.1억달러의 주택기금 조성.
- 지난해 546 채의 신규 IDP 주택 완공 (현재 보스턴 전체 주택의 21%).
- 보다 값싼 주택을 확보하고 용도지정에 맞는 재개발 프로젝트에서 기금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으로 올해 초 Martin J. Walsh 시장은 IDP를 보장하는 법안을 제출하였습니다.

boston planning & development agency

12

-19-

-20-

국외출장 연수보고서 : 나이아가라 하수처리장

최원석 의원(재정건설위원회)

재정건설위원회 위원으로서 기관방문지 가운데 주민 생활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나이아가라 하수처리장에 대한 조사와 보고를 맡게 되었다. 다른 방문지에 대한 소회는 총괄보고서와 다른 의원님들의 보고서로 같음 하고 나이아가라 하수처리장을 중심으로 보고를 하고자 한다.



1. 방문연구 목적

- 현재 수도권 2,300만 시민의 상수원인 한강구역의 수질개선에 기여해 오는 한강 하수종말처리장의 일부에 해당하는 난지하수처리장 수자원 수질개선 방법의 타당성과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미국과 지방 보전국이 활성화되어 하천유역의 보존, 환경보호 등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캐나다의 대표적인 대상으로 나이아가라 폭포의 수질관리와 이해관계자들의 접근 방법, 프로그

램, 구성 및 운영에 대한 우수사례 조사를 통한 현황과 운영의 비교 분석과 향후계획 수립을 위한 방문 연수를 하였음.

2. 현장방문 연수 기관 현황

- 위 치 : 캐나다 온타리오주 Ministry of Natual Resources
- 담당자 : Robert Daw, C.Tech
- 관리지역 : 8만명~20만명 이상의 인구가 사용한 하수를 처리
- 기 간 : 2019년 9월 27일
- 참 여 자 : 총 14명(의원 10명, 사무국 4명)

3. 나이아가라 하수처리장의 특징점

- 미국의 경우, 효율적인 유역관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지방 정부 간의 협력 및 의사결정 등을 위해 동일 유역 내에 위치한 지방정부 간의 주간(Inter-states)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는 등 선진적 유역관리 체제를 구축하고 수자원 및 유역생태계의 보전을 위한 유역협의체의 모범적 운영 사례가 있음.
- 캐나다는 1946년부터 관련 법률을 정비하였고 하천의 보전, 환경보호, 홍수 조절 등을 위해 36개의 지방보전국을 설립하고 지방 자치단체 사이의 비용 분담, 지역별 혜택, 전체 유역의 계획수립 과정 등에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또한 풍부한 수자원을 보유한 국가여서 물 기근의 우려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물 관리를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벤치마킹 대상으로 적합 함.
- 이러한 우수사례의 조사 및 현장방문을 통해, 한강 수질오염 관리에 필요한 시설의 확충과 증설에 필요한 기반구축의 추진 방향을 고민하고 접근 방법을 모색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서울시-고양시)의 합리적인 협력 방안 및 상호역할 분담 방안을 찾아내는 역할을 하여야 할 것임.

4. 운영상 공정 비교

구 분	나이아가라 하수처리장	난지 물재생센터
설치연도	1963년	1987년
처리용량	68,000m ³ /일	100만m ³ /일 (1,2처리장)
근무인원	14명	49명
관리수준	BOD 20mg/L	BOD 10mg/L

5. 나이아가라 하수처리장 공정

- 전체 처리 Process 개요man한다.
 - 스크리닝
 - 응집 및 모래 제거
 - 1차 처리
 - RBCs 공정을 이용한 2차 처리
 - 최종 침전
 - 인 제거
 - 최종 배출수 염소소독 및 탈염소

○ 스크리닝 : 유입된 하수를 스크린으로 1차적으로 걸러냄

나이아가라 하수처리장	난지 하수처리장
	
하수 유입펌프	

나이아가라 하수처리장	난지 하수처리장
	
스크린 및 기계식 갈퀴(rake)	

○ 1차처리(침전)

: 1차 처리에서는 자갈, 모래, 및 그리스, 기름 뿐만 아니라 고형물과 무기질을 대부분 걸러내고 모래침전조, 응집조, 1차침전조 탈수 된 모래는 매립지로 이송 됨.

나리아가라 하수처리장	난지 하수처리장
	
침전조	

나리아가라 하수처리장	난지 하수처리장
	
폭기조	

○ RBCs의 2차 공정 (유기물 제거)

: RBCs는 지방 등 유기물들을 제거하며, 각각의 RBC는 축에 고정된 일련의 플라스틱 재질 디스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처리장에는 35개의 RBC unit이 위치하고 있으며, 하나의 unit에는 35개의 디스크가 내장되어 있음.



○ 인 제거 및 2차 침전조

: RBC에서 처리된 방류수는 2차 침전조에 도달하기 전에 인 제거를 위하여 염화제2철이 첨가되어, 고형물이 침전조에 침전되도록 유량이 줄여 체류시간을 늘리며, 기계식 회전 갈퀴에 의해 침전조 중앙부로 수집된 슬러지는 1차 소화조 또는 1차 침전조로 보내짐.

나이아가라 하수처리장	난지 하수처리장
	
최종 침전조	

○ 최종 방류수의 소독 및 탈염소

- : 방류하기 이전에 하수 내의 유해한 박테리아를 사멸시키기 위해, 2차 침전조로 부터의 방류수가 접촉조로 유입하기 이전에 소독과정이 시작되어, 액상의 염소가 하수에 첨가되며 혼합수는 미로형 구조물 탱크를 통해 유하하게 됨.
- : 염소 소독은 4월 1일부터 10월 31일 까지 이루어지며, 동절기에는 소독을 하지 않고 있으며, 탈염소를 위해 중아황산나트륨을 첨가하고 있음.

6. 시사점

- 나이가가라 하수처리 시설은 1982년 필터처리시설 도입 이후 추가적인 시설의 리모델링이나 기술 도입이 없이 운영되다 보니 시설이 낡아 보수가 필요하며,
- 현장 하수처리장 운영 면에서도 국내에 비해 앞서 있는 수준은 아니고 관리 인력의 보완이 필요해 보였음.
- 향후 난지 하수처리의 추가시설을 설계하고 시공하는 과정은 조금은 느리더라도 철저하게 검토하고 준비함으로써 운영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성능 문제를 최소화 해나가고, 하수관리 기관 간 유기적 업무공유 및 협조를 통해 신속한 하수도관리 업무 시스템은 우리 하수행정에 적극 반영할 필요가 있어 보임.
- 단순히 시설 구축 뿐 아니라 시스템 보완 등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되는 수질개선의 연계 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시설에 선제적인 재정을 투자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하수처리 정책과 장기적 플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
- 특히 나이가가라 하수처리장에서 RBCs 공정을 이용하여 처리된 방류수가 2차 침전조에 도달하기 전에 인 제거를 위한 염화제2철을 첨가 하듯이 인 제거에 대한 중요성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임.
- 난지 하수처리장 또한 수질개선의 일환으로 TP(총인)의 강화된 법적 요건의 에러를 예방하기 위해 반드시 설치해야 할 3차 처리시설 확충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였으나, 현재의 추진과정에서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다는 단점으로 개발제한구역에 묶여 절차가 미루어지고 있는 실정임.

-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등 지방자치단체 간의 긴밀한 상호협조가 필요하며, 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 분담 및 투자로 수질 개선과 환경 보호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지하도시 선진사례를 통한 홍제 보행네트워크

이종석 의원(행정복지위원회)

7박10일간의 일정으로 캐나다와 미국의 동부 도시들을 둘러보았습니다. 의원으로서 나가는 첫 번째 국외출장이었기에 나름 마음의 준비를 하였음에도 컨디션 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등 순탄치만은 않은 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토론토 PATH와 몬트리올 RESO를 중심으로 기타 방문지를 짧게 언급하는 식으로 보고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방문기관은 토론토 시청 노인관련 부서로서 노인정책 관련 벤치마킹을 하였습니다. 노인정책은 65세 기준으로 무상지원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니다.

특히 눈여겨 볼 만한 정책은 Homeshare Pilot Project인데 대학생 등이 노인 관련 생활봉사를 한다는 것이 있고 한국과 같이 사회복지사 및 방문간호사 양성을 통해 119신고 예산을 절감했다고 합니다.

토론토 PATH(underground city)는 겨울 날씨가 매우 추워 이를 대비하기 위하여 지하도시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길이가 30km가 넘고 구조는 빌딩과 빌딩을 지하로 연결하는 구조이며 각 빌딩 지하는 빌딩 소유자가 인테리어와 관리를 한다고 합니다.

각 빌딩을 통과할 때는 우리나라처럼 출입구를 따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건물이 입찰구가 되는 시스템이며 비상구 표시가 우리나라의 2배 정도 사이즈이며 형광색 표시로 눈에 잘 띄는 디자인으

로 되어 있어 비상시 대피가 용이했습니다. 또한 소화전이 투명유리로 작동하기 편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서대문구 홍제권역의 구청장 공약사항인 홍제권역 언더그라운드 시티(최근 보행네트워크로 명칭을 변경)가 이 곳 토론토 PATH를 벤치마킹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400m 구간을 400억 예산을 들일 계획인데 캐나다의 30km와 홍제권역의 400m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을 것이고,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여 그만한 실효성을 거둘 수 있을지, PATH를 직접 본 사람으로서 의문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을지로 지하상가를 크게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듯하며 요즘 말하는 박원순 시장의 ‘광화문 지하도시’ 정책이 더 맞을 듯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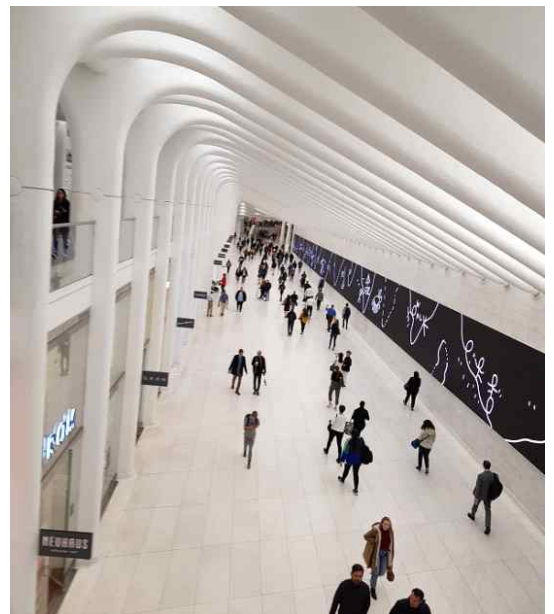
특이한 점은 ‘뛰지 마시오’ 라는 표지판이나 ‘천천히’ 라는 표지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현지 교민의 얘기에 따르면 초등교육부터 ‘스스로’ 라는 교육의 결과라고 합니다. 당연한 것을 지시할 필요가 없다는 뜻이지요.

캐나다는 영국과 비슷한 내각책임제, 즉 의회 중심의 정치체제입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싸움이 아닌 견제와 동료의식으로 2번의 정권교체가 민주적 방식으로 이뤄졌다고 합니다.

2일차에 방문했던 나이가라 하수처리장은 한국과 비교하여 입구부터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습니다만, 시설은 전반적으로 노후되어 보였습니다. 60년대에 건설된 시설이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고 향후 2~3년 후에 새로운 설비로 교체될 것이라는 설명도 있었습니다.

비수기에는 10만명, 성수기 20만명이 이용하는 폐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 있고, 5차에 걸쳐 오염도를 70~80% 정화하여 내보낸다고 합니다.

몬트리올 지하쇼핑몰(RESO) 또한 캐나다의 혹독한 겨울을 이겨내기 위해 건물을 지하로 이어 만들었으며 7개의 지하철역과 몬트리올 시내 빌딩들을 서로 연결한 시설입니다. 토론토와 같이 지상의 추운 겨울생활을 극복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지하상가에 문화공간과 먹거리 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뉴욕 원 월드 빌딩 지하의 보행네트워크

홍제동 지하보행네트워크와 비교한다면, 여러 개의 건물과 최소 수 개의 지하철 환승역이 확보된다면 토론토나 몬트리올의 지하도시와 유사한 효과를 발휘할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러나 현재의 홍제 지하보행네트워크 계획은 PATH나 RESO보다는 뉴욕 원 월드 트레이드센터 빌딩 지하의 보행네트워크가 더 유사해보입니다.

몬트리올 소방담당자의 설명을 들으면서 든 느낌은 아직 대형사고

가 발생한 사례가 없어서인지 특별히 안전에 대한 민감도가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안전불감증에 대한 지적이 많으나 대형 사건사고를 겪으며 전국민적으로 안전에 대한 욕구와 의식이 크게 높아졌다고 판단됩니다만 RESO에서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들으면서는 철저하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습니다. 특히 방화셔터가 충분하지 못한 것 같았고, 화재시에는 불꽃보다는 연기로 인한 질식사자 많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방독면이 설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RESO 내에 설치된 소화전

첼시마켓에 대하여 언급하자면, 요즘 시장과 관련하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급격한 유통구조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백화점이나 대형마트의 매출하락이 지속되는 반면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에서 전통시장은 더욱 힘들 수 있겠지만 첼시마켓과 같이 오래된 건물이나 창고 등을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먹거리 가게로 사람을 끌어당기는 분위기의 시장이 새로운 기능입니다. 먹거리 위주의 맛집들이 있고 사람들이 모이는 유동인구가 증가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저희 지역구인 포방터 시장도 백종원의 골목식당 방송으로 인해 유동인구가 늘어나 시장이 활력을 되찾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첼시마켓 내부

유사한 사례를 또 든다면 강릉 중앙시장, 속초 중앙시장, 통인시장 등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뉴욕의 거리를 보면 푸드트럭이 자주 보입니다. 서대문구도 일자리 창출 및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다양한 푸드트럭을 적극 도입하며 기존 전통시장과의 상생도 도모한다면 유동인구 증가를 통한 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처음으로 다녀온 국외출장이어서 떠나기 전에 설렘보다 긴장을 많이 한 탓인지 한동안 여러 가지로 적응하는데 곤란을 겪은 측면도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든 지나고 나면 미흡하고 아쉬운 기억이 더 많이 나듯이, 다음에는 보다 잘 준비하고 공부해서 더욱 알찬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책 읽는 곳을 넘어 시민의 지혜를 이끄는 도서관

양리리 의원(행정복지위원회)

어느날 갑자기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내 동료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도심 한복판에서 테러로 억울한 죽임을 당한다. 그 배후가 이름도 생소한 오사마 빈 라덴의 테러조직 알 카에다라는 이슬람 테러조직에 의한 것이라 한다. 순간 내 주위에 있는 터번과 히잡을 두르고 다니는 사람들이 모두 테러조직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고, 그 사람들은 위험한 존재들로 느껴서 이 사회에서 추방해야할 것만 같이 느껴진다. 무지는 두려움을 낳고, 그 두려움은 광기를 불러와 사회는 분열되고 상황은 계속해서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일부 약삭빠른 사람들은 이러한 혼란스런 상황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고자 이를 더 부추긴다.



이러한 상황은 아직도 세계인들의 기억 속에 생생한 남아있는 9·11테러사건이 발생이후 미국사회 특히 뉴욕에서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뉴욕 시민들은 그렇지 않았다. 시민들은 곧 침착해졌으며, 위기를 지혜롭게 극복하기 위해 서로 힘을 합쳤고, 누구를 원망하거나 복수를 꿈꾸기보다는 서로를 위로하며 이 상황이 벌어진 원인을 규명하고, 그에 대한 반성과 대책마련을 함께 고민해나갔다. 그들의 이러한 성숙한 시민의식을 이끄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 것이 바로 ‘뉴욕 공공도서관’이다. 뉴욕공공도서관은 9·11테러발생이후 시민들에게 신

속하게 응급처치방법, 병원목록, 피해에 대한 보상상담 방법에 대한 안내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두려움과 분열을 막기 위하여 이슬람과 이슬람 문화 그리고 테러조직에 대한 정보까지 뉴욕시민들에게 상세히 제공하였다. 도서관은 무료로 책을 빌릴 수 있고, 공짜로 강의를 듣거나, 공부할 수 있는 장소 정도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나라 시민들에게는 상상할 수도 없는 정보서비스를 뉴욕공공도서관에서 이처럼 이미 오래 전부터 시행해왔던 것이다.

도서관은 시민의 세금으로 건립되고 운영된다. 그러하니 예산에서 우선순위를 차지할 수 있는 명분이나 시민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도서관은 항상 그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 소방서, 보건소, 경찰서 등 우리 시민들에게 필요한 기관은 너무나 많고 그곳은 우리 사회를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기관으로 보인다. 그러나 도서관은 그렇지 않다. 눈에 보이게 시급해보이지도 않고, 사회 기여도가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나 9·11테러때 보여준 성숙한 시민의식은 평상시 도서관이 시민들에게 어떤 정보를 제공하고 역할을 해왔는지 보여준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뉴욕 공립도서관



53번가 공립도서관

2019년 서대문구의회 해외비교시찰에서는 두 곳의 뉴욕도서관을 방문했다. 한 곳은 인내와 용기 사자상으로 유명한 맨하탄 한복판에 위치한 뉴욕공립도서관과 53번가에 위치한 뉴욕공립도서관 두 곳을 다녀

왔다. 맨하탄도서관은 건축규모의 웅장함과 방문관광객의 수에 놀라웠다. 무엇보다도 그 지가가 하늘보다도 높다하는 뉴욕 맨하탄 한 가운데 엄청난 규모의 공립도서관을 건립한 높은 시민의식수준과 운영방법에 대해 설명을 들었을 때, 미국의 저력에 대해 다시 한 번 느낄 수밖에 없었다. 뉴욕시민들에게 물을 제공하던 저수지가 기술발전과 시설 현대화로 기능이 축소되어 철거가 논의되었을 때 그 자리에 시민을 위한 공립도서관건립을 논의하고 Samuel J. Tilden 전 주지사가 전 재산을 기증한 것을 시작으로 카네기 등 거부들뿐만 아니라 시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해 공립도서관이 완성되었다는 설명을 들으며, 항상 건립에서 후순위로 밀리며 땅값이 싸서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높은 지대에 위치해있는 대부분의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이 생각나서 몹시 안타까웠다.

이러한 상황은 비단 도서관뿐만 아니다. 박물관, 미술관, 음악당, 기록관 등 대부분의 문화시설은 접근성이 매우 떨어지는 높은 곳에 위치한다. 그러한 시설은 많은 시민들이 편히 접근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하여 많은 시민을 만날 수 있어야 한다.

뉴욕공립도서관, 하이라인 공원, 센트럴파크, 허드슨강 등 뉴욕의 주요 기관(?)에는 항상 ‘Friend of 000’ 이라 하여 후원시민단체들이 조직되어 있다. 이러한 시민단체들은 도서관, 공원, 소방서 등 그 기관에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도움을 주고 받는다. 본 의원도 의원이 되기 전 ‘서대문도서관친구들’ 대표로 활동하였는데, 이를 통해 도서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활동을 이끌어내었고, 지역정치인들에게 예산과 인력확보를 촉구하기도 하였다. 아직까지 시민참여가 주체가 되기보다는 구색을 갖추는데 머무르고 있는데, 이러한 문화가 점진적으로 변화되기 바래본다.

맨하탄 중심에 위치한 뉴욕공립도서관에 비해 53번가에 위치한 뉴욕도서관은 규모도 작고 방문객수도 적었지만, 지역주민들에게 도서관이

얼마나 친근하고 소중한 존재인지 바로 알 수 있었다. Children's room과 Teen zone이라 하여 아동과 청소년 공간이 따로 분리되어 있었고, 그 밖의 공간들은 성인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고 있었다. 시설은 매우 현대적이고 세련되었으며, 쾌적했다. 직업을 구하는 사람들을 위해 구직정보와 진로상담이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인터넷연결이 한국처럼 보급되어 있지 않는 미국의 상황을 반영하여 무료와이파이가 제공되었다.

뉴욕의 경우 창업을 위해 많은 외부인들이 진입하는데, 이를 위해 창업에 필요한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사무공간 제공을 위해 개인책상을 비치하였다고 한다. Children's room에는 부모와 함께 책을 읽거나 비치된 교구를 갖고 놀고 있는 가족들이 많았고, 유모차 주차장도 바로 앞에 있어 편리해보였다. 무엇보다도 다양한 인종이 거주하는 뉴욕의 특성을 반영하여 타 문화이해를 돕기 위해 다양한 행사들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이러한 활동을 통해 사회안정화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Teen zone에는 방과 후 숙제를 하기 위해 온 학생들이 많았고, 이들을 고민을 상담해주겠다는 안내문들이 곳곳에 비치되어 있었다.

질풍노도의 시기 자아와 진로에 대한 고민을 상담사뿐만 아니라 도서관의 책과 영화들을 이용해 상담해주는 모습에서 전문사서의 역할과 지역도서관의 역할에 대해 다시 한 번 고민해보게 되었다.



도서관내 유모차 주차장



편안하게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환경

뉴욕공공도서관을 방문하기 전 City of Jersey City와 Council을 방문하였다. City of Jersey City의 화장실 앞에는 ‘Gender

diversity is welcome here ; Please use the restroom that best fits your gender identity or expression' 라는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는데, 이를 통해 Jersey City의 높은 성인지감수성과 다양성 존중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었다. 아직 한국사회에서는 양성평등뿐만 아니라 페미니즘, 젠더이슈, LGBT가 편만한 주제가 아니다. 그래서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의원으로서 이에 대해 인권적 접근뿐만 아니라 어떻게 달리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 되는 것이 사실인데, 시청사 화장실 입구에 저런 내용의 안내문구가 부착되어 있으니 놀랄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이에 대한 질문에 대해 진심으로 상세히 설명해주려고 노력하는 공무원의 모습에서 감동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이에 반해 53번가 공공도서관 가장 아래층에 위치한 화장실은 Family room, Men, Staff 세 곳으로 분리되어 있었는데, Staff는 남성·여성·장애인이, Men은 남성·장애인이 문 앞에 그려져 있는데 반해, Family room에는 여성과 손잡은 아이·장애인이 그려져 있었다. 현실적으로 육아와 양육의 대부분을 여성들이 담당하고 있지만, 이는 개선되어야 한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를 가장 잘 알고 있어야하고 변화를 선도해야 할 공공도서관에서 이런 안내그림의 부착을 통해 기존인식을 무의적으로 공고화시키고 있다는 점이 아쉬웠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장소의 접근성과 사서의 전문성 그리고 시민 참여 모습에서 뉴욕의 공공도서관은 서대문도서관의 워너비 모습임이 틀림없다.

	
뉴욕공립도서관 한국어 안내책자	저지시티 의회의 화장실 입구 안내표지